

목 차

제 4 호

1. 라이덴대학교 도서관 한국 장서와 네덜란드의 한국학	알라드 M. 올로프		1
The Korean Collections of Leiden University Libraries and			
Korean Studies in the Netherlands	Allard M. Olof		13
2. 오클랜드대학교 도서관의 한국어 장서	황규원		27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Auckland,			
New Zealand	Kyu-won (Luke) Hwang		41
3. 한국학 자료의 보고 - 국사편찬위원회 정보검색시스템	윤소영		55
Information Retrieval System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SoYoung Yoon		73
4.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93
NLK News			101

라이덴대학교 도서관 한국 장서와 네덜란드의 한국학

알라드 M. 올 로 프*

간략한 역사

라이덴대학교는 중국·일본·한국학 학사 및 석사과정이 있는 네덜란드 유일의 대학이다. 일본학은 J.J. 호프먼(1805~1878)을 통해 처음 시작되었는데, 1855년 그는 중국학 및 일본학 교수가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학 및 한국어 연구도 수행하였다. 교수가 되기 전 호프먼은 일본 나가사키 데시마에 있는 네덜란드인 거주지역에서 내과 의사였던 필립 프란츠 본 시볼드(1796~1866)의 학생이자 조수였다.

라이덴대학교에서 중국·일본·한국학 과정의 주요 목적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Dutch Indies)가 식민지 통치 시 필요한 통역사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17세기부터 데시마 관련 장들은 교역 증진을 위해 도서 등 일본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으나 갈수록 과학적인 목적을 띠게 되었다. 본 시볼드의 도서, 식물 및 기타 수집품은 라이덴대학교 민족 박물관(1880년경) 대학도서관 일본 섹션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그 이후 1958년 F. 포스 박사(1918~2000)는 일본학 및 한국학 과정을 담당하는 초대 교수가 되었다. F. 포스 박사는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했던 시기(1940~1945)에 J. 라더 교수와 전 선교사였던 올라프 그라프 박사 밑에서 비공식적으로 한국어를 배웠다. 그는

* 1978~1981 한국의국어대학교 네덜란드어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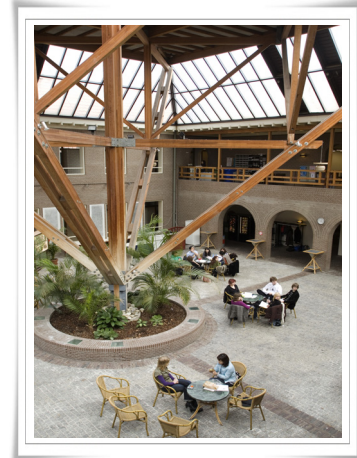
1983~2004 라이덴대학교 한국학·일본학 센터 한국어 및 한국문화 담당 사서 겸 강사/연구원

2005~2009 동 센터 부사서(시간제)

2009~present (新)동아시아도서관 목록 사서

1983년 은퇴하였다. 1994년, B.C.A. 윌라번(1947~)이 처음으로 단독 한국학 과정의 교수가 되었다. 포스 교수 하에서 수학한 그는 논문 “무가: 한국 샤머니즘의 노래(Muga: the songs of Korean Shamanism)”로 1985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도서관



1. 위치

1981년 이래로 한국 장서는 아스널 건물에 위치해 있으며, 이 건물 2층에 일본 장서와 함께 비치되어 있다. 중국 장서는 1층과 2층의 일부 공간, 그리고 3층 전체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한·중·일 장서와 관련 직원은 라이덴대학교 도서관(Leiden University Libraries)이라는 새 조직으로 통합되었고 동아시아도서관(the East Asian Library)을 형성한다. 향후 몇 년 안에 이 장서들은 중앙대학도서관으로 이전될 계획이다.

2. 장서

한국어로 된 한국 장서는 총 10,000책(9,000종) 정도가 있으며, 서양 언어로 된 한국 장서는 약 3,500책(3,300종) 정도이다. 일본 장서 수는 한국 장서보다 약 3배가량 많으며, 중국 장서는 규모가 이보다 훨씬 크다(250,000책, 250종의 정기간행물).

한국 장서는 연간 500~1,000책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 연구 분야(철학, 역사, 종교, 고전 문학)가 여전히 장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25년간 현대 연구 분야(정치, 경제, 영화, 사회학, 인류학)의 장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2.1. 도서 자료



그림 1 오륜행실도



그림 2 조선 정비록

1900년 이전의 도서로 모리스 자메텔 교수 소장품인 1797년 또는 1857년 오류행실도와 1875년 도쿄에서 스가하라 류키치가 편찬한 게이모 조센 시랴쿠(계몽조선사략 啓蒙朝鮮史略) 7책 등이 있다.

장서에는 여러 권으로 이루어진 자료가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7책, 1988~1991), 『조선왕조실록』(총 47책으로 이 중 26~31권은 없음, 1955~1963), 『이조실록』(리조 지스로쿠, 56책, 도쿄, 1953~1967), 『이조실록』 331~357권, 『정조』(서울, 여광, 1993, 평양에서 원저 출판),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38책, 2005~20XX),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천안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43책, 2007~20XX) 등의 국사편찬위원회 시리즈, 『한국지리풍속지총서』(강고쿠 지리 후조쿠시 소쇼, 100책, 경인 문화사 재인쇄, 1989~1990, 게이조, 1912~1945년 니칸 쇼보 판) 등의 한국 독립 운동에 관한 기타 시리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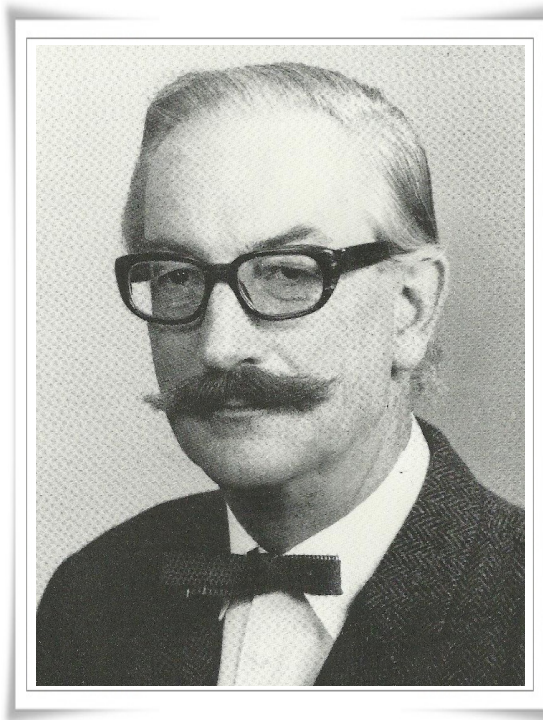


그림 3 프리츠(F.) 포스 교수

2.1.1. F. 포스 교수

F. 포스 교수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부인은 교수의 일본 및 한국 장서를 라이덴대학교에 기증했다. 포스 교수는 일찍부터 한국 도서 수집을 시작했다. 한국전 유엔군의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책을 구입했는데 1950년 12월 서울에서 노영호의 『역대시조정해』(대한교육학회출판, 1949)와 1951년 3월 대구에서 손진태의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서울, 1950)를 구입했다. 기증 장서에는 16세기 말경 중국의 유명한 철학 격언을 집대성한 수십 권의 『채근담』(菜根譚 일본어: 『사이곤단』, 중국어: 『차이근탄』)의 한·중·일 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 고단샤 백과사전』(제6권, 1983)의 『사이곤단』에 대한 설명은 포스 교수가 쓴 것이다. 그의 장서에는 유명한 한국 고전소설인 춘향전의 “멋진” 프랑스어 번역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J.-H 로즈니가 번역했고 『향기로운 봄』(Printemps Parfumé)이라는 제목으로 1892년 파리에서 출판되었다. 삽화는 마를드 언미티스가 그렸으며 세로길이가 13cm이다. 중국학자인 고(故) R.H. 반 굴릭의 아들이 아버지의 장서였던 이 책을 포스 교수에게 증정한 것이다.

2.1.2. 북한

북한 장서(북한이 발행한 북한 출판물)는 제한적이다. 1950년대 출판물(이상현, 황건, 박달, 전세봉, 김평훈, 정창윤 등의 소설)을 소장하고 있다. 영어로 쓰인 많은 북한 정치 책자를 무료로 얻었으나, 1995년경 중단되었다.

여러 권으로 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새인식』(10책, 서울, 2006), 『조선향토대 백과』(20책, 서울, 2003~2005).

2.2. 정기간행물

현재 85개의 한국 정기간행물 및 연감을 구독하고 있다(35종은 영어로 되어있고, 대부분 무료로 받고 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구독하는 신문은 보관하지 않는다.

그 예로는 『한글』 1~206권(서울, 한글학회, 1932~1984, 결호 있음), 『조선 가쿠호(朝鮮學報)』(텐리, 일본: 조센 각카이) 1권(1951)부터 현재 발행된 권까지, 『한국 연구(Korean survey)』 2~10권(초판: 코리안 퍼시픽 프레스, 워싱턴, 재판: 한국대사관, 영국, 1953~1961), 문학잡지인 『현대문학』은 1권(1955)부터 현재 발행도니 권까지(결호 있음), 『아시아틱 리서치 불러틴(Asiatic Research Bulletin)』 1~14권(서울: 고려대학교, 1958~1972), 『백산 학보』(한국역사 연구 저널로서 대륙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춤) 1~22권(서울: 백산학회, 1966~1977), 『민주공화당편람(The Democratic Republican Party bulletin)』 2~14권(서울, 1967~1980) 등

2.2.1. 북한

『한국무역연합』 12호(1965)~6호(1978, 결호 있음), 『문학신문』 723~774호(평양, 1965, 1~6월, 결호 있음), 『민주조선』 6095~6251호(평양, 1965, 1~6월), 『한국의 농업종사자』 1~33권(평양, 1968~1973), 『천리마』 271~331호(평양, 1981~1986), 『노동신문』(1984년 4월~1987년 12월, 1991년 2월~1995년 12월) 등

2.3. 시청각자료

LP판(약 25점, 한국음악), 테이프(약 100점, 대부분 한국어 교습용), 비디오, CD 및 DVD(약 550점)를 보유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내용의 비디오는 실제 사용 목적으로 DVD에 복사했다.

열람실 내 위성 TV를 통해 한·중·일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으며, 이는 PC 모니터나 대형 스크린에 연결해서 볼 수 있다.

DVD 녹음 및 시청각 자료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기기(대부분의 경우 도시바 RD-XV47사용)를 보유하고 있다. DVD 재생기에서 재생할 때 지역 제한이 없다. 표준 윈도우 XP 용이 아닌 시청각 자료는 버추얼 PC로 아이맥(iMac)에서 사용할 수 있다.

3. 교류 및 지원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대학교(규장각), 동북아역사재단, 국립역사편찬위원회, 국립문화재연구소(대전소재)로부터 한국 장서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인류학 시리즈 중요무형문화재 도서 및 관련 DVD를 보내주었다. 이들 기관 중 일부와는 교류 관계를 맺고 있다.

삼 년 전부터 영화진흥위원회(Kofic)에서 수백 개의 영화 DVD 및 영화 서적을 보내기 시작하는 등 매년 지원을 해줌으로써 라이덴대학교는 유럽에서 가장 광범위한 한국영화 자료를 소장하게 되었다.

4. 이용자

한국 장서 이용자로는 먼저 연구자, 학부 및 석사 과정 재학생(한국학 전공자 30, 부전공자 50), 기타 학회원 및 학생, 외부인(고교생 및 한국 사회와 문화에 관심 있는 자)이 있다. 또한 상호대차를 통해서 네덜란드 내의 대학뿐 아니라 외국 대학에도 대출해주고 있다.

열람실은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고 안내 및 대출 데스크가 있다. 이곳에서는 개별 또는 그룹으로 공부하고, 영화나 TV를 시청하거나 신문을 읽을 수 있다. 목록에 접속할 수 있는 단말기, 그리고 PC와 DVD 재생기 외에도 노트북 사용자를 위해 와이파이(Wi-Fi) 이용이 가능하다. 조용히 공부할 수 있도록 특별 열람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대화가 금지되어 있다.

한국학을 전공하는 3년차 학부생 7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익명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열람실 시설(프론트 데스크, 온라인 목록, 현재 정기간행물 및 편람)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열람실을 가끔 이용하며, 한 명은 자주 이용하고, 한 명은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한 명은 한국 시청각 미디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으며, 두 명은 구식 카드 목록을 모른다고 대답했다.

5. 도서관 직원

최근 한·중·일 장서 담당 도서관 직원은 라이덴대학교 도서관(Leiden University Libraries) 직원으로 통합되었다. 총 5명이 있는데 모두 시간제 직원이다. 직원 한 명이 한국 및 일본 자료 수서(acquisition)를 하고 있으며, 다른 직원 한 명이 한국 자료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도서관 대출 데스크 직원은 지역배치 코디네이터를 통해 대민서비스 중앙 인력 풀에서 배치된다. 일본 장서의 경우 현재 3명의 시간제 자원봉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6. 서비스



그림 4 설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서비스에는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수서 및 목록작성, 대출, 일반 및 전문 정보 제공 등이 있다. 또한 도서관 직원은 지속적으로 온라인 수서 목록을 발간한다.

라이덴도서관에서는 월드캣(Worldcat)에서 가져온 미국 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 옆에 1943년 하버드대학 하버드-엔칭연구소 사서인 카이밍 치우가 고안한 ‘고전적인’ 『중국 및 일본 도서 분류체계(Classification scheme for Chinese and Japanese books)』를 사용하고 있다(중국, 일본, 남·북한 관련하여 개정된 부분 포함). 라이덴도서관의 분류체계는 <http://hy.leidenuniversity.ne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설명은 네덜란드어로만 제공되지만 주제명표목은 영어로도 제공되므로 일단 분류 시스템에 접속하면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현재의 분류 시스템은 향후에도 계속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표기는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을 따른다. 다른 도서관에서 사용되는 매쿰-라이샤워 표기와 차이가 있는 것이 일부 있다. “시”는 si가 아니라 shi로 표기하고, 조사는 선행하는 명사와 붙임표(-)로 연결된다(/Han’guk/+üi는 /Han’gug- üi/로 표기).

토착어 표기(한글, 한자)는 아직 디지털화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2010년 10월 OCLC가 차이나베이스의(library.leiden.edu/humanities/chinese/frequently-used-databases/) 75,000점의 중국어 자료(한자 포함)를 온라인 목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접속이 가능하며 캠퍼스 밖에서도 라이덴대학교 연구자와 학생은 디지털도서관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예술 및 인문학 인용색인(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이나 『아시아연구 서지(Bibliography of Asian Studies, BAS)』와 같은 수많은 일반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한국학에 초점을 맞춘 RISS, 『조선왕조실록』 등의 전자텍스트, 한국신문 포털 서비스인 ‘신문가게’ 같은 데이터베이스도 있다.

라이덴도서관 개관시간은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화·수·목 오전 9시~오후 7시이다.

7. 자동화

대부분의 서양도서와 정기간행물 그리고 약 35%의 한국어 도서는 전산화되어 있다. 자료는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으며, 대출 시스템 또한 전산화되어 있다. 2005년부터 라이덴도서관은 엑스리브리스사(ExLibris Co.)의 Aleph500시스템을 이용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나 한국어로 된 도서 65%는 아직도 카드 목록(자료, 저자, 분류번호)에서만 찾을 수 있고 2000년 전에 중단된 대부분의 정기간행물도 그러하다. 계획에 따르면, 모든 도서와 정기간행물은 향후 전산화될 예정이다.

라이덴대학교 한국학 센터는 2006년 유럽 한국학 데이터베이스 실행을 위한 프로젝트를 교양학부국제관계국(Offic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Faculty of Arts)과 비 서양학 유럽리그(European League for Non-Western Studies)와의 협력을 통해 실시했다. 이는 2006년 10월 29일~11월 5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도서관사서워크숍에서 발표된 것이다. 그러나 2년간의 준비 작업 후 이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다.

교육

1. 1980년대까지 한국학 전공자는 소수였다. 1980년대부터 그 숫자는 첫 해에 5명에서 10명(전공자)으로 늘어났다. 2010년 9월에 들어서는 회화 시간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1년차 학생 수가 40명(대부분 부전공자)에 다다랐기 때문이었다. 2010년 학부생 및 대학원(석사)생의 수는 총 80명이었다(전공자 30, 부전공자 50).

일본학 및 중국학의 경우, 전공자의 수는 훨씬 많다. 지난 20년간 1년차 일본학 및 중국학 전공자는 각각 100명 이상(때때는 130~140명)이었다.

학사과정은 3년이고 석사과정은 1년 또는 2년이다. 학사과정의 초점은 현대 한국어를 읽고 쓰는 것에 맞춘다. 이러한 언어에 대한 이해는 2년 및 3년차에 학술연구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강의 프로그램과 기타 정보는 온라인(<http://www.studereninleiden.nl/studies/info/talen-en-culturen-van-korea/bacheloropleiding/>)에서 찾을 수 있지만 네덜란드어로만 제공된다.

1.1. 1학년 학생들은 첫 학기에 지명숙 강사가 지도하는 듣기수업과 말하기·글쓰기 수업, 그리고 월라번 교수의 글과 문화, 1876년까지의 한국역사 수업을 매주 2시간씩 듣는다. 2학년 학생들은 지명숙 강사의 회화수업과 드 퀘스터 박사의 한자, 글 읽기, 남북한의 발전 상황 수업을 매주 2시간씩 수강한다. 1·2학년 학생들은 또한 철학 및 지역학 같은 일반 주제도 공부해야 한다.

1.2. 1학년 학생들은 두 번째 학기에 한국의 물질문화 2시간, 문법 2시간, 글 읽기 1시간(월라번), 한국 근대사 2시간(드 퀘스터)을 듣는다. 2학년은 문화와 사회 2시간, 문학 읽기 2시간, 한국에 대한 조망 2시간(월라번)을 듣는다.

1.3. 3학년 학생들의 주요 공부는 교수 중 한 명과 논의한 주제에 대한 학사논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또한 매주 회화 2시간, 글 읽기 2시간, 드 퀘스터 교수가 내준 주제에 대해 글을 쓰는 세미나 2시간을 듣는다.

2. 석사과정은 영어로 제공된다. 1년의 석사과정에서는 두 과목을 듣는데 한 과목은 한국학 관련이고 다른 한 과목은 한국학 이외의 분야, 예를 들면 책과 디지털 미디어 연구 같은 것을 듣게 된다.

2년의 석사과정은 좀 더 학리(學理)적이다. 지역 연구 중 아시아 연구에서 한국학에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아시아와 중동이다. 석사과정 학생들은 드 퀘스터의 현장세미나 “현대 한국의 역사, 공공의 기억 그리고 기억의 정치”를 이수한다.

연구

라이덴대학교의 한국학과 관련하여 교수 1명, 조교수 1명, 연구자/박사과정생 5명 정도가 있다. 이들의 출판물 및 강의 목록은 유럽한국학협회(AKSE)의 연간 『뉴스레터』에 실려 있다.

B.C.A. 월라번 교수는 한국 역사 및 종교가 전공이지만 미디어 출연을 통해서 한반도 관련 주제에 대해 논평을 하기도 한다. 그는 『홍길동전』 같은 고전소설을 네덜란드어로 번역했고 시조와 불교예술 등 많은 주제에 관한 책을 출판했다. 그는 같은 해에 출판된 네덜란드어 도서의 번역본인 『하멜의 세계: 17세기 네덜란드와 한국의 조우』(암스테르담, 2003)의 공동 편집자이다.

또한 2003년에는 한국학 진흥 공로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보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현재 그는 유럽한국학협회(AKSE) 회장이며 2009년 6월에는 라이덴에서 AKSE 회의를 주최했다. 회의록은 K. 드 퀘스터 박사와 마티나 반 덴 하크가 정리했다.

쿤 드 퀘스터 박사(1963~)는 논문 「근대화에서 협력까지 : 한국 문화 민족주의의 딜레마 : 윤치호(1865~1945)의 사례」(루벤 가톨릭 대학교, 벨기에, 1994)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한국 근대사를 전공했으며 미디어에 출연해서 자신이 몇 번 방문하기도 한 북한의 진전 상황에 대해 논평하기도 했다. 가장 최근 북한 화가를 만나고 난 후 유럽으로 돌아와서 북한의 예술에 관해 여러 번 강의했다. 2007년, 이준과 1907년 헤이그 평화 회의에 관한 두 편의 논문을 썼고, 2008년 캠브리지대학교 역사문화에 관하여 썼다. 드 퀘스터 박사는 『북한 포스터 : 데이비드 헤더 컬렉션』(런던, 2008)의 편집자이다.

라이덴지역학연구소(Leiden Institute of Area Studies, LIAS)의 램코 브뤼커 박사(1972~)의 전문분야는 고려, 동북아 중세사, 한국의 현대영화, 모조품 및 위조품이다. 그는 논문 「진실이 도처에 있을 때: 중세 한국(918~1170)의 복수 정체성 형성」(라이덴대학교, 2006)

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0년 9월 한국 정체성에 대한 연구로 역사과학부문 하이네켄 젊은 과학자 상을 수상했다. 그는 한국 중세사를 공동체와 정체성 형성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이론적 틀에 둔다. 네덜란드 왕실과학예술학회(KNAW)는 처음으로 네덜란드 대학 최고의 과학자 5명에게 이 상을 수여했다. 브뢰커는 또한 부인과 함께 황석영, 조정란, 오정희 소설 등 한국 현대문학을 네덜란드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이정심(1974~)은 논문 「한국 식민지 시기(1910~1945)의 불교작가」를 준비하는 막바지 단계에 있다. 2009년 라이덴에서 자신의 주제와 관련한 두 편의 논문과 모스크바에서 한 편의 논문 등을 읽었다. 한용운의 소설 『죽음』에 관한 논문이 『종교, 정체성 그리고 갈등』(도루 아오야마 편집, 도쿄, 2010) 및 『IIAS 뉴스레터』 54호(2010)에 실렸다.

K.J. Cwierka 박사는 물질문화와 소비, 음식의 역사와 인류학, 식민주의와 전쟁의 인류학, 세계화와 관련한 연구를 통해 일본과 한국 모두를 다룬다. Cwierka 박사는 (B.C.A. 월라번과 함께) 『아시아 음식 : 글로벌과 로컬』(하와이대학교프레스, 2001)의 편집자이자 『요리, 식민주의, 냉전 : 20세기 한국 음식』(릭션 북스, 2011)의 저자이다. 현재 Cwierka 박사는 네덜란드 과학연구기구(NWO)가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프로젝트인 “충체적인 전쟁을 유지하기 : 일본과 한국의 군사화, 경제동원 및 사회변화(1931~1953)”의 주요 연구관으로 있다. 연구팀에는 박사후 과정 연구자(미호 야스하라)와 박사과정생(박경희)도 포함되어 있다.

2010년 9월 현재 엘머 벨드캄프 박사(1975~)는 한국 및 일본 민속연구 분야(특히 한국, 일본에서 인간-동물 간 일상적인 관계의 현대적 변화와 관련한 민속)에서 활동 중인 인류학자로서 한국교류재단의 비상근 박사후 과정 연구자로 임명되어 자신의 논문(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한국과 일본의 인간-동물 관계에서 변화하는 현실) 출판을 위해 이를 다시 쓰고 있다.

2009년 라이덴지역학연구소(LIAS) “사회 형성과정으로서의 역사: 한국의 비전통적인 역사문헌” 프로젝트의 연구팀은 일 년에 두 번 온라인 저널인 『한국역사(Korean Histories)』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관련 논문은 www.koreanhistories.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5년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지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또한 2명의 박사과정생인 윤민경과 제롬 드 위트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한국학 분야의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The Korean Collections of Leiden University Libraries and Korean Studies in the Netherlands

Allard M. Olof*

A Short History

Leiden University is the only place in the Netherlands that offers bachelor and master programs of Chinese, Japanese and Korean studies. Japanese studies in Leiden started with J.J. Hoffmann (1805 - 1878) who became a professor in 1855 for Chinese and Japanese and who also made some study of Korea and its language. He had been a student and assistant of Philip Franz von Siebold (1796 - 1866), who was physician at the Dutch settlement of Deshima in Nagasaki.

The main purpose of these studies in Leiden was to deliver interpreters for the colonial administration in the Dutch Indies. From the 17th century Dutch captains on Deshima started collecting information on Japan, including books, to promote trade but more and more also for scientific purposes. The books, plants and other objects in the collection of Von Siebold form the basis for the Ethnological Museum in Leiden and (around 1880) the Japanese section of the University Library.

Much later, in 1958, dr F. Vos (1918 - 2000) became the first professor on a combined chair for the study of Japan and Korea. He had studied Korean during the German occupation

* 1978-1981 Teacher of Dutch language at Hangeul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1983-2004 Librarian and teacher/researcher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Center for Japanese and Korean Studies, Leiden University
2005-2009 Ass.-librarian (part time) at same CJKS.
2009-present Cataloguer at newly named East Asian Library.

of the Netherlands (1940 - 1945) privately under Prof. J. Rahder and Dr. Olaf Graf, a former missionary. He retired in 1983. In 1994 B.C.A. Walraven (1947 -) became the first professor solely for Korean studies. As a student of Vos he had obtained his PhD in 1985 with the dissertation *Muga: the songs of Korean Shamanism*.

THE LIBRARY



1. Location

Since 1981 the Korean collections are located in the Arsenal building and occupy the same space with the Japanese collections on the 2nd floor of the building. The Chinese collections occupy the 1st, part of the 2nd and the whole 3rd floor. Recently these collections and their staff were incorporated in a new organization: Leiden University Libraries, where they form **the East Asian Library**. There are plans to move the collections in a few years to the central University Library.

2. The Collection

The Korean collection has a total of ca. 10,000 vols. (9,000 titles) in Korean language and ca. 3,500 vols. (3,300 titles) in western languages on Korea. The Japanese collection is about three times larger, the Chinese collection (250,000 vols., 250 periodicals) much larger.

Annual growth of Korean books is between 500 and 1,000 volumes.

The traditional fields of study (philosophy, history, religions and classical literature) are still well represented in the book collection, but the last twenty-five years more modern fields (politics, economics, film, sociology and anthropology) are occupying an ever growing part of the stacks.

2.1. Books



Fig. 1 Oryun haengshillo



Fig. 2 Choson Ch'ingbirok

There are a few books of before 1900, e.g. the *Oryun haengshilto* (五倫行實圖) of 1797 or 1857 from the collection of prof. Maurice Jametel, and the *Keimō Chōsen shiryaku* (Kyemong Chosŏn saryak 啓蒙朝鮮史略), 7 vols., compiled by Sugahara Ryūkichi, Tōkyō, 1875.

The collection has multivolume titles like the *Han'guk minjok munhwa taebaekkwa sajŏn* (27 vols.; 1988 - 1991); *Chosŏn wangjo shillok* (47 vols.; 26~31 are lacking; 1955 - 1963); *Yi-jo shillok* (*Ri-chō jitsuroku*; 56 vols.; Tōkyō, 1953 - 1967); *Yi-jo shillok*, vols. 331 - 357: *Chŏngjo* (Seoul: Yŏgwang, 1993; orig. publ. in P'yŏngyang); *Taehan min'guk Imshi chŏngbu charyojip* (38 vols.; 2005 - 20XX) and many other series of the Kuksa p'yŏnch'an wiwŏnhoe; *Han'guk tongnip undong-ŭi yŏksa* (Ch'ŏnan-shi: Tongnip kinyŏmgwan Han'guk tongnip undongsa yŏn'guso; 43 vols.; 2007 - 20XX) and other series on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Han'guk chiri p'ungsokchi ch'ongsŏ* (*Kankoku chiri fūzokushi sōsho*; 100 vols.; reprint by Kyŏngin munhwasa, 1989 - 1990, of the Keijō: Nikkan shobō edition of 1912 - ca.1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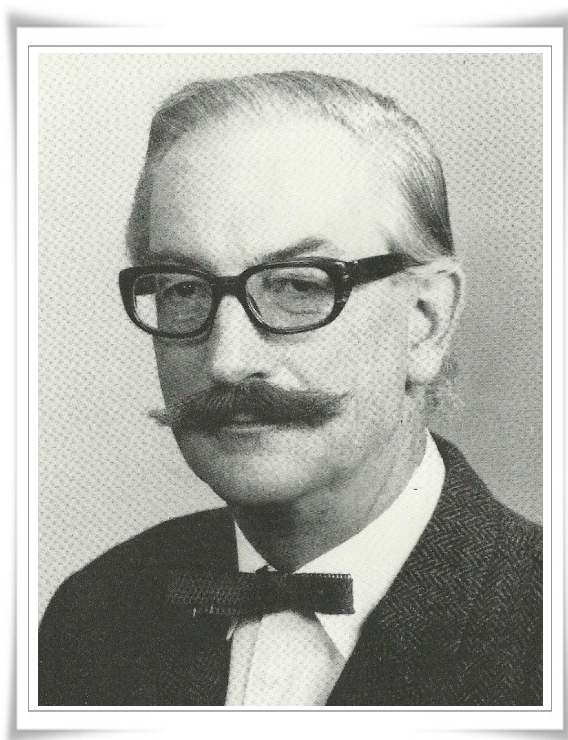


Fig. 3 Prof. Frits Vos

2.1.1. F. Vos

After prof. F. Vos passed away his wife donated his Japanese and Korean books to the university. Prof. Vos started his collection of Korean books at an early date. While serving as an interpreter for the U.N. forces in the Korean War he bought books whenever there was an opportunity, e.g. No Yǒng - ho's *Yǒktae shijo chǒnghae* (publ.: Taehan kyoyuk hakhoe, 1949), bought in Seoul in December 1950, and Son Chin - t'ae's *Chosǒn minjok sǒrhwa-ŭi yǒn'gu* (Seoul, 1950) in Taegu in March 1951. The donated collection included dozens of Japanese, Korean and Chinese editions of the *Cai gen tan* (菜根譚 Jap.: *Saikontan*, Kor.: *Ch'aegŭndam*), a collection of popular philosophical sayings compiled in China at the end of the 16th century. The entry in the *Kodansha encyclopedia of Japan* (vol.6; 1983) on the *Saikontan* is by prof. Vos. His library also included a 'cute' French translation of the famous Korean classical novel *Ch'unhyang - chǒn*, translated by J. - H. Rosny under the title *Printemps Parfumé*, published in Paris, 1892. The translation is illustrated by Marold en Mittis and 13 cm. high. Prof. Vos was

presented with this work in 1970 by a son of the late Sinologist R.H. van Gulik from his father's library.

2.1.2. NK

The North Korean collection (publications by and on the DPRK) is limited. We have North Korean publications from the 1950s (novels by Yi Sang-hyŏn, Hwang Kŏn, Pak Tal, Ch'ŏn Se-bong, Kim Pyŏng-hun, Chŏng Ch'ang-yun etc.). We received for free many English language political booklets, but that stopped around 1995.

Multivolume titles include: *Pukhan-ŭi sae inshik* (10 vols.; Seoul, 2006) and *Chosŏn hyangt'o taebaekkwa* (20 vols.; Seoul, 2003 - 2005).

2.2. Periodicals

We have ca. 85 subscriptions to Korean periodicals and yearbooks (35 in English; many are received free of charge). With a few exceptions, we do not keep the newspapers we subscribe to.

Examples are: *Han'gŭl* vol.1 - 206 (Seoul: Han'gŭl hakhoe, 1932 - 1984; with lacunae); *Chōsen gakuho* (Tenri, Japan: Chōsen gakkai) is present from vol.1 (1951) up to present; *Korean survey* vols.2~10 (first publ.: the Korean Pacific Press, Wash.; next publ.: the ROK embassy, London, 1953 - 1961); the literary magazine *Hyōndae munhak* from vol.1 (1955) up to present (with lac.); the *Asiatic Research Bulletin* vols. I~XIV (Seoul: Korea University, 1958 - 1972); *Paek-san hakpo* (Journal devoted to the study of Korean history with emphasis on her continental aspects) vols.1-22 (Seoul: Paek-san hakhoe, 1966 - 1977); *The Democratic Republican Party bulletin* vols.II-XIV (Seoul, 1967 - 1980), etc.

2.2.1. NK

The Korean trade unions no.12 (1965) - no.6 (1978; lac.); *Munhak shinmun* nos.723-774 (P'yŏngyang, 1965, Jan. - June; lac.); *Minju Chosŏn* nos.6095-6251 (P'yŏngyang, 1965, Jan. - June); *The agricultural working people of Korea* vols.1-33 (P'yŏngyang, 1968 - 1973); *Chŏllima*, nos.271-331 (P'yŏngyang, 1981-1986); *Nodong shinmun* (Apr.1984 - Dec.1987, Febr.1991 - Dec.1995), etc.

2.3 Audio - visual materials

There are some LP records (ca. 25 with Korean music), tapes (ca.100; mostly for Korean language learning), videos, CD's and DVD's (ca. 550). The videos with documentary contents were copied on DVD for practical purposes.

In the reading room satellite TV gives access to TV programs from China, Japan and Korea, which can be seen on a PC screen or a wide screen for groups.

There is equipment for DVD recording and digitalizing of AV materials (a Toshiba RD-XV47 for most cases). There is no region limitation on the DVD players. AV materials that are not for standard Windows XP can be used on an iMac with Virtual PC.

3. Exchange and Support

The Korean collection receives support from the Korea Foundatio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Kyujanggak),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 National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and the Kungnip munhwajae yŏn'guso (in Taejŏn). The last institute sent us books and related DVDs of the anthropological series *Chungyo muhyŏng munhwajae*. With some of these institutions we have an exchange relationship.

Three years ago the Korean Film Council (Kofic) started her annual support by sending hundreds of films on DVD and a few hundred books on cinema making the collection into one of the most extensive Korean film collections in Europe.

4. Users

Users of the Korean collection are first of all the researchers and BA and MA students (for Koreanology 30 majors, 50 minors), other academicians and students, and people from outside the university (high school students and other people with a special interest in Korea, her culture and society). We also lend through interlibrary loan to other universities, in the Netherlands as well as international.

The reading room is open to the public, with a desk for information and lending books. It is a place to study, individually or in groups, to watch films or television or just to read

newspapers. Besides terminals giving access to the Catalogue, PC's and DVD players there is a WiFi connection for laptop users. A special room is reserved for quiet study, where talking is not allowed.

A recent anonymous poll among seven 3rd year students of Korean showed they were on average satisfied with the equipment of the reading room (front desk, online catalogue, periodicals and handbooks present). Most of them used the reading room sometimes, one often, one never. One said he/ she had not yet used the Korean AV media, and two were not acquainted with the old card catalogue.

5. Library staff

Recently the library staff of the Japanese, Chinese and Korean collections were incorporated into the Leiden University Libraries staff. They consist now of five people, who all have a part time appointment. Acquisition of Korean and Japanese titles is done by one person, cataloguing of Korean titles is done by another person. The lending desk of the library is staffed from a central pool of Public Services under a location coordinator. For Japanese there are at the moment also three part time voluntary workers.

6. Services



Fig. 4 Students get instruction

The services that the library provides are acquiring and cataloguing books and periodicals, lending out, giving general and specialized information. Also the library staff produces continuous online Acquisition lists.

Next to the LoC subject headings taken from Worldcat we still use the 'classic' *Classification scheme for Chinese and Japanese books* by K'ai-ming Ch'iu, librarian of the Harvard-Yenching Institute at Harvard University, 1943 (with amendments for China, Japan and the Koreas). Our classification can be found at (<http://hy.leidenuniversity.net>). The explanation is only in Dutch but the subject headings are also in English, so if you have once entered the classification system you might find your way around. We do not expect to use this system far into the future.

Transcription is according to the McCune-Reischauer system. There are some differences with M.R. - transcription as used in some other libraries: e.g. /ㄷ/ is /shi/, not /si/. And particles are connected with the preceding noun by a hyphen: /Han'guk/ + /üi/ gives: /Han'gug - üi/.

Vernacular script (han'gŭl, hancha) is not yet available in digitalized form, though in October 2010 OCLC will start the conversion of the 75,000 Chinese titles (with characters) of the so-called Chinabase (library.leiden.edu/humanities/chinese/frequently-used-databases/) to the online catalogue.

Access to online databases is possible, also off Campus for researchers and students of Leiden University, through the Digital Library. Besides numerous more general databases, such as the *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 and the *Bibliography of Asian Studies (BAS)*, there are also databases focused on Korean studies such as RISS, electronic texts like *Chosŏn wangjo shillok*, or the portal service for Korean newspapers 신문가게 (*shinmun kage*).

The library is open Monday and Friday 9.00 - 17 hrs., Tuesday, Wednesday, Thursday 9.00 - 19 hrs.

7. Automation

Almost all the western books and periodicals and ca. 35% of the Korean language books are computerized. The titles can be found online and the lending system also is computerized. Since 2005 we catalogue using the Aleph500 system of ExLibris Co. But 65% of the books

in Korean are still only to be found in the card catalogue (on title, author and systematic number), and most of the periodicals that stopped before 2000. According to plan all books and periodicals are to be computerized in the coming years.

There was a Project for the initiation of an European Korean Studies Database, initiated in 2006 by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Leiden University, in cooperation with the Offic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Faculty of Arts, and the European League for Non - Western Studies. This was announced at the Workshop for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ans held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oul, Oct. 29 – Nov. 5, 2006. But after two years of preparatory work the project was suspended.

EDUCATION

1. Until the 1980s there were very few students majoring in Korean. From the 1980s the numbers increased from five to more than ten students (majors) in the first year. The hours for conversation were expanded in September 2010 because the number of first year students reached 40 (mostly minors)! In 2010 there were in all about 80 Bachelor and Master students (30 majors, 50 minors).

For Japanese and Chinese the numbers are much higher. The last two decades more than 100 majors (sometimes 130 - 140) enrolled for the first year of Japanese and Chinese studies each.

The bachelor programs take three years, the master programs one or two. The main accent of the bachelor program is on reading and speaking modern Korean language. This grasp of the language is to be used in the second and third year for academic research purposes. The programs and other information is online but in Dutch: <http://www.studereninleiden.nl/studies/info/talen-en-culturen-van-korea/bacheloropleiding/>

1.1. In the first semester first year students have e.g. two hours Listening Skills and two hours Speaking and Writing from Mrs Myung-sook Chi, two hours Text & Culture and two hours Korean History up to 1876 from Prof. Walraven. Second year students get two hours of Conversation from Mrs Chi and two hours *Hancha*, two hours Reading Texts, and two hours

Developments in North and South Korea from Dr. De Ceuster. First and second year students also have to study general subjects like the Philosophy of Science and Area studies.

1.2. In the second semester the first year students get two hours Korean Material Culture, two hours Grammar and one hour Reading Texts (Walraven), and two hours Modern Korean History (De Ceuster). The second year students have two hours Culture & Society, two hours Reading Literature and two hours Perspectives on Korea (Walraven).

1.3. The main work in the third year is the writing of a bachelor thesis on a subject to be discussed with one of the staff members. There are also weekly two hours of Conversation, two hours of Text Reading and a two hour seminar on the writing of a thesis given by De Ceuster.

2. The Master programs are given in English. There are two courses for one year Master studies, one a specialization in Korean studies, the other outside the field of Koreanology, for example: Book and Digital Media Studies.

The two year Master program is the more scientific one. Closest to Korean studies is the Asian studies specialization in area studies: Asia and the Middle East. Master students follow De Ceuster's State of the Field Seminar: "National History, Public Memory, and the Politics of Remembrance in Contemporary Korea."

RESEARCH

Involved in Korean studies at Leiden University are one professor, one assistant - professor, and about five researchers/ PhD candidates. Their publications and lectures are enumerated in the annual *Newsletter* of th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AKSE).

Prof. Dr. B.C.A. Walraven specializes in Korean history and religions, but does also appear in the media to comment on actual themes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He has translated classical novels like *Hong Kiltong chŏn* into Dutch and published on many subjects like *sijo* poems and Buddhist art. He is co - editor of *Hamel's world: a Dutch-Korean encounter in the*

seventeenth century (Amsterdam, 2003), a translation from the Dutch book that appeared the same year.

Also in 2003 he was awarded the Order of Cultural Merit (*Pogwan munhwa hunjang*)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all his efforts to promote Korean studies. At present he is President of AKSE and hosted in June 2009 the AKSE conference at Leiden. The proceedings of this conference were compiled by Dr. K. De Ceuster and Martina van den Haak.

Dr. Koen de Ceuster (1963 -) got his PhD with a dissertation *From modernization to collaboration: the dilemma of Korean cultural nationalism: the case of Yun Ch'i-ho (1865 - 1945)* (Catholic University of Leuven, Belgium, 1994). He specializes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also commenting in the media on developments in North Korea which he visited a few times. On the last occasion he met North Korean painters and gave, back in Europe, several lectures on art in the DPRK. In 2007 he gave two papers on Yi Jun and the Peace Conference of The Hague of 1907, and in 2008 on historiography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 He is the editor of *North Korean posters: the David Heather collection* (London, 2008).

Dr. Remco Breuker (1972 -) of LIAS (Leiden Institute of Area Studies) specializes in Koryŏ, Northeast Asian medieval history, contemporary cinema and fakes and forgeries in Korea. He got his PhD with a dissertation *When truth is everywhere: the formation of plural identities in medieval Korea, 918 - 1170* (Leiden University, 2006). In September 2010 he was awarded the *Heineken Young Scientists Award* for historical science for his research of Korean identities. He places the Korean medieval history in the broader theoretical framework of community and identity formation. The Royal Netherlands Academy of Sciences and Arts (the KNAW) was for the first time presenting these awards to five excellent scientists at Dutch universities. Breuker has also, together with his wife, translated modern Korean literature into Dutch, e.g. novels by Sŏg-yŏng Hwang, Kyŏng-nan Cho and Chŏng-hŭi O.

Mrs. Jung-Shim Lee (1974 -) is in an advanced stage of preparing her dissertation *Buddhist writers in colonial Korea (1910 - 1945)*. In 2009, she read two papers on her subject in Leiden, one in Moscow, and so on. Articles on Han Yongun's novel *Death* were published in *Religion, identity and conflict* (edited by Toru Aoyama; Tokyo, 2010) and in the *LIAS Newsletter* No.54 (2010).

Ms.Dr. K.J. Cwiertka covers both Japan and Korea with her research of the Material Culture and Consumption, History and Anthropology of Food, Anthropology of Colonialism and War, Globalisation. She is editor (together with B.C.A. Walraven) of *Asian Food: The Global and the Local*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1) and author of *Cuisine, Colonialism and Cold War: Food in Twentieth Century Korea* (Reaktion Books, 2011). Currently Cwiertka acts as Principal Investigator of the research project funded by the Netherlands Organization for Scientific Research (NWO) entitled 'Sustaining Total War: Militarization, Economic Mobilization and Social Change in Japan and Korea (1931 - 1953)'. The research team includes also a post-doctoral researcher (Ms. Miho Yasuhara), and a PhD student (Ms. Kyoung-Hee Park).

As of September 2010 Dr. Elmer Veldkamp (1975 -), as anthropologist active in folklore studies of Korea and Japan (esp. folklore concerned with contemporary changes in everyday life human - animal relationships in Korea and Japan), got a part-time appointment as a Korea Foundation Post-doctoral Fellow to rewrite his dissertation (*What feels natural: the changing reality of human-animal relations in Korea and Japan*; University of Tokyo, 2010) for publication.

In 2009, the LIAS (Leiden University Institute for Area Studies) research team of the project 'History as Social Process: Unconventional Historiographies of Korea' started publishing the bi-annual online journal *Korean Histories*. Articles are available at www.koreanhistories.org. The project is supported b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for five years. The Academy also awarded grants to two PhD candidates, Min-kyung Yoon and Jerome de Wit, in order to write their dissertations in the same field of study.

서론

이 글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에 위치한 오클랜드대학교 도서관의 한국어 장서에 대한 안내글이다. 북미 대륙이나 호주에 비하여, 뉴질랜드 내 한국학의 실태나 한국어 장서의 현황은 세계 각국, 심지어 한국에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글은 오클랜드대학교의 한국학 현황 그리고 도서관의 한국어 장서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넓히 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클랜드대학교

(마오리¹⁾ 이름: Te Whare Wānanga o Tāmaki Makaurau)

오클랜드대학교(이하 오클랜드대)는 뉴질랜드 최대의 도시 오클랜드에 있는 최상위 대학이다. 뉴질랜드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로서, 2개의 주요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약 430만 명이다.

* 오클랜드대학교 도서관 한국학 사서

1) 마오리(Māori)족은 뉴질랜드의 원주민으로서, 뉴질랜드는 영어와 마오리어를 공용어로 택하고 있다.

오클랜드대학교의 기원은 1883년 뉴질랜드대학교(University of New Zealand)의 소속 대학 중 하나로 설립된 오클랜드전문대학(Auckland University College)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전문대학은 그 당시 사용되지 않던 법원과 감옥 건물에서 95명의 학생과 4명의 교수진으로 시작하였다. 그 이후 오클랜드대는 발전을 거듭하여 뉴질랜드 국내 최대, 최고 규모의 대학교로 성장하였다. 오클랜드대학교는 오클랜드 시 전체 지역 6곳에 걸쳐 8개의 단과대학(Faculty)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학생 수는 약 38,000명으로 (대학원생 10,000명 및 학부생 28,000명) 이중 4000명이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온 유학생이다²⁾.



그림 1 오클랜드대학교 시내 캠퍼스 전경 가운데 보이는 건물이 학교의 상징인 시계탑(Clock Tower).

오클랜드대학교는 연구 실적으로 평가했을 때 뉴질랜드 내 대학 중 최고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대학이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Symonds)가 발표한 2010년 세계 대학 순위조사에서 오클랜드대가 세계 100위권 대학에 포함된 유일한 뉴질랜드 대학교로 나타났다(68위 기록)³⁾. 아울러 유니버시티21(Universitas21), 세계 대학교 네트워크(WUN), 태평양연안 대학교연합회(APRU)에 소속된 대학교는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대가 유일하다⁴⁾.

2)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학 통계 참조, <http://www.auckland.ac.nz/uoa/key-statistics>

3) 2010년 QS 세계 대학 순위 참조, <http://www.topuniversities.com/university-rankings/world-university-rankings/2010/results>

4) 대학 소개 참조, <http://www.auckland.ac.nz/uoa/home/about/the-university/new-zealands-leading-university>

오클랜드대학교 도서관

오클랜드대학교 도서관은 오클랜드 전문대학의 출범 이후 설립되었다. 구(舊) 국회의사당(Old Parliament Building) 건물 내부의 조그마한 공간과 연간 예산 100파운드를 책정받아 도서관이 시작되었다. 그 후 1927년 도서관은 시계탑(Clock Tower) 건물 내부로 이동되었다. 1968년 현재의 중앙도서관(General Library) 건물이 완공되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도서관 장서가 이전되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도서관의 장서와 서비스는 계속 확장되어 갔으며, 특정과목을 지원하는 단과대학 도서관들이 확충되었다.



그림 2 중앙도서관 전경

오늘날 오클랜드대학교 도서관은 뉴질랜드 내 최대 규모의 도서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오클랜드 전역에 퍼져있는 5곳의 캠퍼스에는 총 13개의 도서관이 있다. 이중 제일 큰 도서관은 시내 캠퍼스에 있는 중앙도서관이다(그림 2). 이 외에도 과목별로 특화된 12개의 도서관 분관이 있으며, 또한 4개의 정보광장(Information Commons)이 운영되고 있다. 오클랜드대 도서관은 호주의 5대 대학 도서관과 나란히 어깨를 겨루고 있으며, 전자자료의 공급과 개발의 선두주자이다.

오클랜드대학교 도서관 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 13 개의 단과대학별 도서관
 - 중앙도서관(인문학, 경제·경영학, 과학, 뉴질랜드 컬렉션)
 - 건축대 도서관
 - 시청각자료실
 - 경상대 정보센터
 - 공대 도서관
 - 미술대 도서관
 - 데이비스 법대 도서관
 - 음악대 도서관
 - 교육대 도서관(엠포 캠퍼스)
 - 필슨 도서관(의학, 보건학): 그래프톤 캠퍼스에 위치
 - 해양과학 도서관: 리이 캠퍼스에 위치
 - 타이 토케라우 캠퍼스 교육대 도서관
 - 타마키 캠퍼스 도서관(과학 및 인구보건학)
- 4개의 정보광장
 - 케이트 에드가(Kate Edger) 정보광장
 - 엠포 정보광장
 - 그래프톤 정보광장
 - 타마키 정보광장
- 관외 저장보관소(타마키 캠퍼스에 위치)
- 대학 제본소(타마키 캠퍼스에 위치)

오클랜드대 도서관의 장서 규모 역시 뉴질랜드 대학들 중 최대 규모이다. 표 1에 장서 규모의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다⁵⁾.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4600개의 책상이 있고, 이중 컴퓨터를 갖춘 책상이 1100개이다. 전체 도서관 시스템에서 일하는 직원 수는 220명 이상이며, 이중 90명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전문사서이다.

5) 좀더 자세한 정보는 도서관 정보(Library Facts) 참조 http://library.auckland.ac.nz/about/library_facts_figures.pdf

표 1 오클랜드대 도서관 장서 현황(2009년 12월 현재)

인쇄자료	전자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행본 220만권 - 마이크로필름 357,500점 - 지도 46,600점 - 시각자료 38,944점 - 청각자료 31,409점 - 사진 및 그림 47,200점 - 40,700 슬라이드 및 멀티미디어 - 1,970m에 달하는 원고 및 필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베이스(800종 이상) - 전자 저널(87,100종) - 전자책(343,000권) - 강의과목 전자자료(10,400)

오클랜드대 도서관은 이용자들을 위하여 정보활용(information literacy)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과 교수진이 도서관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이용자 교육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제전문사서(Subject Librarian)는 해당 주제 분야에 대하여 이용자들에게 깊이 있는 학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주제에 관한 자료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업을 가르치기도 한다.

한국어 장서가 속해 있는 아시아언어장서과는 중앙도서관 3층에 위치하고 있다. 다음 장에는 먼저 아시아언어장서과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 그리고 한국학 장서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아시아언어장서과

오클랜드대 도서관의 아시아언어장서과(Asian Languages Collection)는 아시아 각국의 언어로 된 장서 중 뉴질랜드 최대, 최대 규모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언어장서과는 오클랜드대학교 내, 특히 아시아학부(School of Asian Studies)의 아시아 관련 연구, 지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소장 자료는 주로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및 인도네시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뉴질랜드의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아시아 관련 자료가 장서의 작은 일부분인 데 비해, 오클랜드대의 아시아 언어장서는 중앙도서관 내에 고유의 공간을 갖고 있는 독립된 장서이다.

아시아언어장서과는 1966년 아시아 언어문학과(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소수의 중국 관련자료가 수집되었고, 1968년에는 일본어 장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9년에 한국어 장서가 구축되었다.

아시아 언어장서의 소장자료 중 중국어 자료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어 자료는 35%, 한국어 자료는 15%를 이루고 있다. 소장자료의 종류는 참고자료, 정기간행물, 신문, 전자 데이터베이스, 비디오, CD 등 다양하다. 희귀본 및 귀중자료는 열람이 불가한 보관실에 따로 소장되어 있다. 영어로 된 아시아학 관련 자료는 중앙도서관 전체에, 특히 인문계 관련서가에 배치되어 있다.

아시아언어장서과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3개 언어에 걸쳐 사서 자격을 갖춘 아시아 전문사서들이 근무하고 있다. 아시아 전문사서들의 주요 직무는 해당 아시아 국가의 모든 주제분야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 개발, 목록작성, 정리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의 교수진 및 학생 그리고 때때로 일반인 이용자를 위하여 특정언어에 대한 참고봉사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클랜드대학교의 한국학 및 한국어 장서 현황

오클랜드대학교는 뉴질랜드에서 유일하게 한국학(Korean studies)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이다. 다음에서는 오클랜드대의 한국학 현황과 한국에 관한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하는 한국어 장서에 대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오클랜드대학교의 한국학

오클랜드대학교에서의 한국학은 1989년 연강재단의 후원을 받아 교내에서 최초로 한국어 강좌가 개시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후 1994년 아시아 언어문학과 내에서 한국학이 하나의 정식 프로그램으로서 승격되어 계속 발전하였다. 이 학과는 2002년 ‘아시아학부(School of Asian Studies)’로 승격되었으며, 현재 뉴질랜드 내 아시아학과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⁶⁾.

6) 아시아학부에관하여 http://www.arts.auckland.ac.nz/uoa/home/about/departments-and-schools/school-of-asian-studies?S=D_ASIAN 참조

다른 학과에 비해 비록 역사는 짧지만, 오클랜드대 한국학은 교내에서 활기차고 확고한 학과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다. 한국학 프로그램에는 정교수 2명과 어학강사 다수가 활동하고 있다(2010년 9월 현재).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가 제공되고 있고, 학사 및 석사 학위 코스가 운영되고 있다. 전공 학생은 한국학을 주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선택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예: 한국어 문학사, Bachelor of Arts in Korean). 다만 대학원 과정에서의 정식 한국학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데, 전공 학생은 다른 과목을 전공으로 선택하면서 한국학 관련 대학원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오클랜드대 한국학 프로그램 및 한국학 강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시아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⁷⁾.

또한 오클랜드대학교는 1995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에 힘입어 설립된 ‘한국학센터(Korea Studies Centre)’를 운영하고 있다⁸⁾. 한국학센터는 대학 산하 ‘뉴질랜드-아시아 연구소(New Zealand Asia Institute)’의 소속 기관으로서, 뉴질랜드 내에서의 한국학 진흥, 한국과 뉴질랜드 간 학술·문화 교류 촉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학센터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개최한다. 예를 들어, 한국 내 저명한 대학들과 자매결연 관계를 맺거나, 한국 관련 문제에 대하여 학술회의,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2010년의 경우, 한국학센터에서는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 1명을 교환교수로 초빙하여 1학기 동안 오클랜드대에서 강의하도록 하였다. 9월에는 서울대학교와 합동으로 학술회의를 열었으며, 11월에는 아시아학부와의 협력 하에 “제10차 태평양-아시아 한국학 학술대회(10th Pacific-Asia Conference on Korean Studies)”를 개최한다.

오클랜드대학교 도서관 한국어 장서

가. 개 요

오클랜드대학교의 한국어 장서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국어 자료 컬렉션이다. 또한 뉴질랜드에서는 유일하게 한국학사서(Korean Resources Librarian)가 관리하고 있는 전문 학술장서이기도 하다.

한국어 장서는 오클랜드대학교에서의 한국 관련 연구 및 교육을 뒷받침하고, 특히 아

7) 한국학 강좌 안내, <http://www.arts.auckland.ac.nz/uoa/home/about/subjects-and-courses/korean>

8) 한국국제교류재단 편. <해외한국학백서>, 2007. (Korea Foundation, “Whitepages on Korean Studies Overseas”, 2007)

시아학부의 한국학 프로그램을 후원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1989년 한국어 장서가 구축되었을 때, 연강재단에서 기증한 자료를 목록작성하기 위하여 한국인 1명이 파트타임 사서로 채용되었다. 그 이후 1999년 한국학사서의 직위는 풀타임으로 강화되었고, 도서관으로부터의 자료구입 예산도 증가해 한국어 장서는 꾸준히 발전하였다.

또한 한국의 여러 기관들로부터의 기증과 후원이 한국어 장서가 성장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이 보내주는 많은 기증자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연구 자료지원 프로그램(Distribution of Resources for Korean Studies)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외 국사편찬위원회,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국립민속박물관 등의 기관과 개인이 기증하는 자료들에 힘입어 한국어 장서는 질적, 양적인 면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

한국어 장서의 주이용자는 교내 학생들과 교수진이다. 현재 상당수의 한국학생이 오클랜드대에서 수학 중이며(영주권자 및 유학생을 포함하여 약 800명), 이들이 한국어 장서를 열심히 이용하고 있다. 또한 오클랜드대학교 도서관 방침⁹⁾상 일반인의 도서관 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 중 가끔씩 도서관에 와서 한국 책을 읽는 교민도 있다(자료의 관외대출은 불가).

나. 한국어 장서의 구성

뉴질랜드가 비교적 소국(小國)인 것에 비하여, 오클랜드대 한국어 장서는 국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소장자료는 약 12,000권에 달하는 단행본을 비롯하여, 구독중인 정기간행물 13종이 있고, 시청각자료실에 400점 이상의 시청각 자료가 있다.

소장자료 수로 봤을 때 오클랜드대 한국어 장서는 호주·뉴질랜드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한국어 장서이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국어 장서는 호주 국립도서관(45,000권)¹⁰⁾이며, 모나쉬대학교 도서관의 한국어 장서(15,000권)가 두 번째로 크다¹¹⁾.

9) 오클랜드 대학도서관 정책 참조, <http://www.library.auckland.ac.nz/about/membership/#2>

10) 호주국립도서관 한국어 장서, <http://www.nla.gov.au/asian/lang/koreancol.html>

11) 모나쉬대학교 아시아도서관 한국어 장서, <http://www.lib.monash.edu.au/matheson/asrc/korea.html>

한국어 장서는 역사, 문학, 사회과학, 예술, 영화학, 종교 등 광범위한 주제에 걸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한국학 프로그램의 연구분야에 속하는 자료도 많다. 전통적으로 오클랜드대 한국학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 문학, 역사를 중심으로 강좌가 개설되어 왔다. 따라서 전체 소장자료 중 문학작품이 36%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역사 관련 자료가 22%로 두 번째로 많다. 그 이외에 사회과학(9%), 인문학(8%), 언어 교육(8%), 예술(3%), 기타(법학, 문헌정보학 등)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은 미국 의회도서관 분류법(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LCC)에 의거한 한국어 장서 소장자료의 주제별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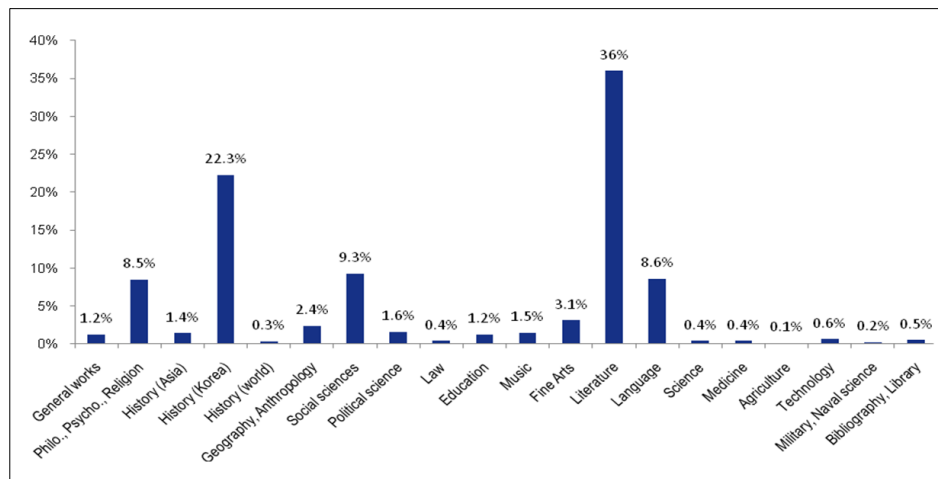


그림 3 LCC에 따른 한국어 장서의 주제 분석

오클랜드대 한국어 장서는 역사가 길지 않고 규모가 작은 편이긴 하나, 때때로 값어치 있는 원(原)연구자료를 구입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05년에 구입한 400권에 달하는 방대한 이조실록(李朝實錄)이 있다. 또한 한인 재외동포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입한 ‘레닌의 기치’(카자흐스탄의 옛 한국어 신문) CD-ROM이 그 좋은 예이다.

최근까지 아시아 언어장서 및 한국어 장서에서 사용되고 있던 도서분류법은 하버드-옌칭 분류법(Harvard-Yenching Classification)이었다. 이 분류법은 하버드 대학교의 하버드-옌칭도서관에서 중국어 자료를 분류하기 위하여 1927년에 개발된 분류법으로서, 현재 이 분류법을 쓰고 있는 도서관은 세계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¹²⁾. 하버드-옌칭 분

류법은 너무나 오래 되었고, 분류법 체계가 현재 아시아 장서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한 가지 예로, 옌칭분류법에 따르면 한국은 아직 일제시대의 식민지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아시아 언어장서 전체를 미국 의회도서관분류법(LCC)으로 재분류하자는 계획이 2005년 처음 제안되었다. 그러나 여러 사정상 계획이 지연되다가 2008년 말에 가서야 시작될 수 있었다. 한국어 장서가 다른 아시아 언어 장서에 비하여 규모가 제일 작으므로, 한국어 장서를 테스트 삼아 제일 먼저 재분류하기로 결정하였다. 2008~2009년 여름방학 동안 고된 노동집약적 과정을 거쳐 한국어 장서 자료의 재분류 작업이 2009년 초에 마무리 되었다. 중국어와 일본어 장서 자료의 재분류 작업도 2009년 동안 계속되었고, 드디어 2010년 초 아시아 언어장서 전체가 LCC로 새롭게 분류 되었다.

끝으로 한국어 장서의 모든 자료는 한국어로 된 자료지만, 한국어 장서 이외에도 오클랜드대 도서관은 도서관 시스템 전체에 걸쳐 영어로 된 한국에 대한 책들과 저널을 다량 소장하고 있다.

다. 한국어 장서 개발

한국어 장서의 장서 개발은 일차적으로 한국학사서가 담당하고, 한국학 교수진 및 아시아학사서(Asian Languages Librarian)와의 협의 하에 행해진다. 한국학사서가 수집하는 자료는 주로 한국어로 된 자료지만, 때때로 한국과 관련된 영어자료를 수집하기도 한다. 자료 선택은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Collection Management Plan¹³)에 기반을 두고 시행된다. 자료 선정은 책 카탈로그, 인터넷, 개인 추천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아래의 조건들도 선정기준에 해당한다.

- a. 한국학 교수진의 연구 및 교수 분야
- b. 현재 제공되는 한국학 강좌 분야
- c. 학생이 연구를 위해 신청한 자료(도서관의 개발정책에 부합해야 함)

12) 출처: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Harvard-Yenching_Classification

13) 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참조, <http://library.auckland.ac.nz/about/biblio/cdp/coldev.htm>

전통적으로 한국어 장서의 장서개발은 주로 언어, 역사, 인문계열 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새 분류법으로 변모한 지금, 오클랜드대 아시아학의 연구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한국학의 연구분야도 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장서도 이런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장서개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전통적인 개발분야를 유지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장서를 개발하고 있다. 한인 재외동포, 다문화주의, 번역학, 사회과학(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등), 그리고 동아시아 각국의 사회적 변화 및 뉴질랜드와 아시아 각국의 관계를 다룬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한다.

라. 한국어 장서에 기반한 서비스

한국어 장서를 관리하는 일 외에, 한국학사서는 대학교 내 한국학을 지원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i) 연구 지원

앞서 말했듯이 한국어 장서의 기본목적은 학교 내 한국학 교수진과 학생들의 연구와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학사서는 교수의 연구분야에 해당하는 신착자료가 도착했을 때 교수에게 통보해 주거나, 교수진과 함께 장서개발의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눈다. 학생들도 담당과목 교수의 추천을 받으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학사서는 한국학 교수진의 연구를 후원하기 위한 장서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오클랜드대학교의 한국학 프로그램이 강세를 보이는 연구분야 중 하나는 조선족, 고려인, 한인 다이스포라 등 재외동포에 관한 연구이다. 이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오클랜드대 한국어 장서는 최근 상당수의 재외동포 관련 자료를 수집,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ii) 참고봉사 및 정보활용교육 서비스

한국학사서는 학생, 교수, 다른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로 정보제공 및 참고봉사 서비스(Reference service)를 제공한다. 아시아 언어장서과는 개관 시간 중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안내데스크(Enquiry desk)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학사서는 안내데스크에서 이용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도움을 제공한다.

도서관 이용강좌 또는 세미나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도 한국학사서가 하는 일이다. 아시아언어장서과 및 교육서비스과(Learning Services)와 협력하면서 한국학사서는 특정 한국학 과목에 맞게 설계된 강좌 또는 학생들이 도서관을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활용 프로그램을 가르친다. 또한 한국학 연구가이드(그림 4 참조) 홈페이지¹⁴⁾의 개발 및 유지를 위한 협력을 제공한다. 이 홈페이지는 학생 및 교수진이 자신의 연구분야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한국학의 전자자원을 찾게 도와주는 포털 사이트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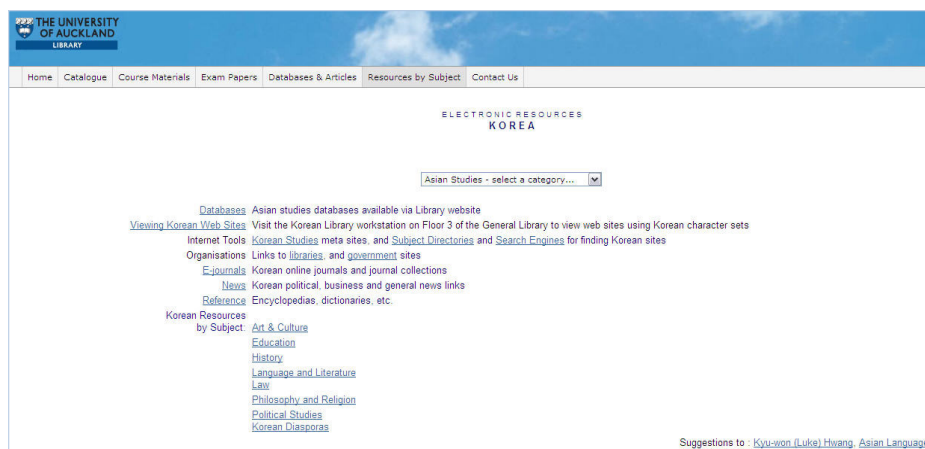


그림 4 한국학 연구가이드 웹페이지

한국학사서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는 한국 또는 외국에서 오클랜드대학교에게 중요한 손님이 도서관을 방문할 경우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매년 한국의 학문기관의 학자들 또는 도서관의 사서들이 오클랜드대학교를 찾는다. 이들이 도서관을 방문하면 필요한 경우 한국학사서는 한국어 장서에 대해 소개하고, 도서관 이용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준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오클랜드대 도서관과 외국 기관과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14) 한국학 연구가이드, http://www.library.auckland.ac.nz/subjects/asian/korea_menu.htm

결론

지금까지 오클랜드대학교 도서관의 한국어 장서와 한국학 현황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오클랜드대학교는 뉴질랜드에서 유일하게 한국어 학술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학사서는 한국어 장서를 발전시키고 한국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전자자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한국어 장서는 웹 2.0 시대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Auckland, New Zealand

Kyu-won (Luke) Hwang*

Introduction

This article is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collection in the University of Auckland Library, located in Auckland, New Zealand. In comparison with North American or Australian counterparts, the status of Korean collections or Korean studies in New Zealand is not very well known to the rest of the world, especially to Korea itself. The article aims to give reader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ollection as well as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Auckland.

The University of Auckland

(Māori name: Te Whare Wānanga o Tāmaki Makaurau)

The University of Auckland (UoA) is a premier university located in Auckland, the largest city of New Zealand. New Zealand is an island country in the Southern Pacific that consists of two main islands with a population of 4.3 million people.

* Korean Resources Librarian, University of Auckland Library

The opening of Auckland University College as a constituent of the University of New Zealand in 1883 marked the beginning of the University of Auckland. The College was first housed in a disused courthouse and a jail building with 95 students and 4 teaching staff. Since then the University has become the largest and most comprehensive university in New Zealand. The University has more than 38,000 students (10,000 postgraduates & 28,000 undergraduates) including over 4000 international students from 90 countries worldwide¹⁾ in 8 faculties at 6 locations in and around the greater Auckland area.



Fig. 1 City campus of the University of Auckland. The Clock Tower is in the middle.

The University of Auckland is New Zealand's top-ranked tertiary institution based on research quality. The UoA is the only university in New Zealand ranked among the world's top 100 universities, according to the 2010 Quacquarelli - Symonds (QS) World Rankings of Universities (ranked at 68th)²⁾. It is also the only institution in New Zealand that belongs to Universitas 21, the World Universities Network (WUN) and the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APRU)³⁾.

1) From *University key statistics*, <http://www.auckland.ac.nz/uoa/key-statistics>

2) Cited from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Results 2010*, <http://www.topuniversities.com/university-rankings/world-university-rankings/2010/results>

3) *University introduction*, <http://www.auckland.ac.nz/uoa/home/about/the-university/new-zealands-leading-university>

The University of Auckland Library

The University of Auckland Library began soon after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Auckland University College. A room was made available in the Old Parliament Building and an annual budget of £100 was provided for the Library. The Library was relocated to the Clock Tower building in 1927. In 1968 the current General Library building was constructed to accommodate the Library's growing collections. The collections and services of the Library have continued to expand over the years and subject-specific libraries attached to teaching departments have been added.

Today the UoA Library has become the most extensive library system in New Zealand, with 13 libraries across five campuses in and around the greater Auckland area. The largest is the General Library on the city campus as shown in Figure 2. In addition, there are 12 subject-specialized libraries as well as 4 Information Commons facilities. The Library system ranks with the top five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es and is at the forefront of provision and development of electronic resources.



Fig. 2 The General Library on City campus

The UoA Library system is comprised of the following libraries and subsidiaries.

- 13 Subject-specific Libraries
 - General Library (arts, business and economics, science & New Zealand collection)
 - Architecture Library
 - Audiovisual Library
 - Business Information Centre
 - Engineering Library
 - Fine Arts Library
 - Davis Law Library
 - Music Library
 - Education Library on Epsom campus
 - Philson Library (medical & health science) on Grafton campus
 - Marine Science Library on Leigh campus
 - Tai Tokerau Campus Library (education)
 - Tamaki Campus Library (science and population health)
- 4 Information Commons facilities
 - The Kate Edger Information Commons
 - Epsom Information Commons
 - Grafton Information Commons
 - Tamaki Information Commons
- Off-campus storage facility (Tamaki campus)
- University Bindery (Tamaki campus)

The Library's collections are also the largest among New Zealand university libraries. The details of the collections are shown in Table 1⁴). There are over 4,600 study spaces, with 1,100 of these having computer workstations. More than 220 staff members work in the whole Library system of whom over 90 are professionally qualified librarians.

4)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Library Facts*, http://library.auckland.ac.nz/about/library_facts_figures.pdf

Table 1 Holding status of the UoA Library (as of December 2009)

Hardcopy items	Electronic it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 million monographs- 357,500 microfilms- 46,600 maps- 38,944 visual recordings- 31,409 audio recordings- 47,200 photographs and drawings- 40,700 slides and multimedia- 1,970m archives and manuscrip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0+ networked databases- 87,100+ electronic journals- 343,000+ electronic books- 10,400 electronic course readings

The Library is also responsible fo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literacy training for library users and offers a variety of tutorials to help staff and students become more effective users of the Library. Subject Librarians who are specialized in their respective fields help users with in-depth information queries, offer individual assistance with finding information, and provide tutorials covering course-specific resources and databases.

The Asian Languages Collection is located on Level 3 of the General Library. The Korean collection is part of the Asian Languages Collection. Next is a brief introduction to the Asian Languages Collection, followed by details of the Korean collection.

Asian Languages Collection

The Asian Languages Collection is the largest and most comprehensive collection of Asian language materials in New Zealand. The Collection supports the teaching, learning and research of Asia-related academic programmes at the University, especially for the School of Asian Studies. It is comprised of materials mainly from China, Japan, Korea, Taiwan, and some from Indonesia. Unlike most New Zealand libraries where Asian materials occupy only small parts of their main collection, the Collection is a discrete collection within the General Library and is allocated its own space.

The Asian Languages Collection was established in 1966 when the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was founded. A small number of Chinese items were the first materials that the Collection acquired. In 1968 a Japanese collection was established, followed by a Korean collection in 1989.

About a half of the Asian Languages Collection is occupied by Chinese materials and approximately 35% and 15% by Japanese and Korean items respectively. The Collection is comprised of reference books, periodicals, newspapers, electronic databases, videos and CDs. Rare books and valuable items are stored in special storage rooms with closed access to users. English language materials relevant to Asian studies are distributed across most of the arts and humanities collections in the General Library.

The Asian Languages Collection is staffed by professionally qualified Asian librarians for each respective language (Chinese, Japanese, Korean). The primary duties of the Asian librarians are to collect, develop, catalogue and process Asian language items across all subject areas. They also provide language-specific reference and instructional services for university staff, students and on occasion, members of the public.

Overview: Korean Studies and Korean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Auckland

The University of Auckland is the only university in New Zealand that offers a Korean studies programme. The next section is a summary of the state of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and the Korean collection and its services which support teaching, learning and research on Korea.

Korean Studies at Auckland University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Auckland began in 1989 when Korean languages courses were offered with the sponsorship of the Yonkang Foundation in Korea. The Korean programme was formally established in 1994 within the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 In 2002 the Department became the School of Asian Studies which is the largest

department specialised in Asian studies in New Zealand⁵⁾.

Despite its relatively short history, the Korean programme has developed into a well-grounded, lively academic programme within the University. The Korean programme has two full-time lecturers and is supported by a few language tutors (as of September 2010). It offers Korean language and cultural courses on both undergraduate and postgraduate levels. Students can earn a Bachelor degree with Korean chosen as their major or minor (e.g. a Bachelor of Arts in Korean). At postgraduate level, although there is no formal postgraduate programme in Korean, students are able to take postgraduate course in Korean as part of a programme in another subject. More details of the Korean programme and Korean courses offered at the University can be found on the School of Asian Studies' website⁶⁾.

The University of Auckland also operates the Korea Studies Centre, which was set up in 1995 with the support of the Korea Foundation⁷⁾. It was established as part of the New Zealand Asia Institute at the University for the purposes of promoting Korean Studies in New Zealand and encouraging academic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New Zealand and Korea both within and outside the academic communities. The Centre regularly holds a range of events and activities to fulfil those goals. For example, the Centre maintains sister relationships with major universities in Korea and invites renowned Korean scholars to participate in conferences or to conduct seminars on Korean issues. During the first half of 2010, the Centre invited an economics professor from Korea University as a visiting scholar. In September a joint conference with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held. In November the Centre, in conjunction with the School of Asian Studies, is hosting the 10th Pacific-Asia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5) From *School of Asian Studies* homepage, http://www.arts.auckland.ac.nz/uoa/home/about/departments-and-schools/school-of-asian-studies?S=D_ASIAN

6) From *Korean at the University of Auckland*, <http://www.arts.auckland.ac.nz/uoa/home/about/subjects-and-courses/korean>

7) 한국국제교류재단 편. <해외한국학백서>, 2007. (Korea Foundation, "Whitepapers on Korean Studies Overseas", 2007)

The Korean collection

A. Overview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Auckland Library is the biggest collection of Korean language items in New Zealand. It is the only academic Korean collection in New Zealand managed by a dedicated full-time Korean librarian.

The Korean collection exists in order to support study and research about Korea within the University, especially for the Korean programme at the School of Asian Studies.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collection in 1989, a part-time Korean librarian position was created to catalogue the Korean materials donated by the Yonkang Foundation. This position became full-time in 1999 and the collection has continued to develop with Library funding. Donations and assistance from various organizations in Korea have also provided a great deal of help with the growth of the collection.

The collection has benefited greatly from donations from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and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for Korean Studies from the Korea Foundation (KF). Contributions from other organizations such as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e May 18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Gwangju City,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nd private individual donors enhance and enrich the collection too.

Primary users of the Korean collection are students and staff of the University. There are a large number of Korean students studying at the University (approximately 800, including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ents) who make high use of the collection. Also, members of the wider Korean community in Auckland occasionally come into the Library and browse the collection as the University of Auckland Library policy⁸⁾ permits the public free access to its print collections.

B. Composition of the Collection

In spite of New Zealand's small size, the Korean collection can be considered to be significant by international standards. Currently the collection holds nearly 12,000 volumes in

8) Refer to *Conditions of Access to The UoA Library*, <http://www.library.auckland.ac.nz/about/membership/#2>

monographs, 13 journal subscriptions, and over 400 audiovisual items in the Audiovisual Library.

It is the third largest Korean collection in the Australasian region in terms of numbers of volumes.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holds the biggest Korean collection⁹⁾ (45,000 volumes) in the region, followed by the Korean collection (15,000 volumes) of the Asian Studies Research Collection in Monash University Library¹⁰⁾.

The Korean collection covers a wide range of subjects such as history, literature, social sciences, fine arts, film studies, and religion. At the same time, the collection reflects the research interest areas of the Korean studies programme. Traditionally, the curriculum of the Korean programme focussed on Korean language teaching, literature and history. The largest part of the collection is comprised of works of literature, about 36% of the total. Books on Korean history occupy the second largest part (22%). The rest of the collection comprises social sciences (9%), humanities (8%), language teaching (8%), fine arts (3%) and other miscellaneous areas (law, library science, etc.). Figure 3 shows the holdings ratio of the Collection as of the end of 2009 according to the subject areas of the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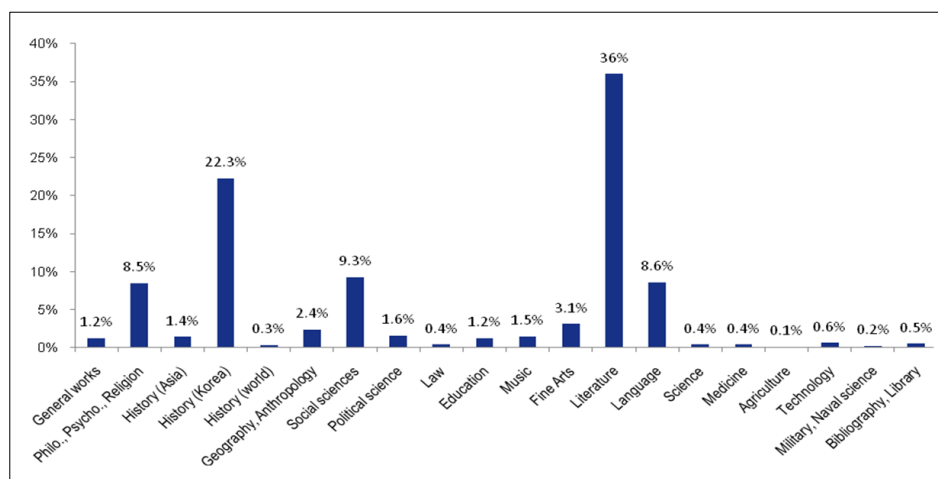


Fig. 3 Subject structure of the Korean Collection

9) From *Korean Collection,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http://www.nla.gov.au/asian/lang/koreancol.html>

10) *Asian Studies Research Collection – Korea*, <http://www.lib.monash.edu.au/matheson/asrc/korea.html>

Although the Korean collection is relatively short in history and small in size, the collection has been able to acquire some notable original research materials from time to time. The purchase of a 400 volume set of Yijo Sillok (李朝實錄) in 2005 was such a case. Another example is a CD-Rom copy of an old Korean newspaper in Kazakhstan, Lenin Kichi (레닌의 기치), which was bought to support research on overseas Koreans.

Until recently, the Korean collection along with other Asian collections was one of the few libraries in the world that used the Harvard-Yenching Classification (HYC) system. The HYC is a classification system which was primarily designed for the classification of Chinese language materials in the Harvard-Yenching Library in 1927¹¹⁾. However, the HYC was considered to be outdated and no longer appropriate to serve the Asian Collection effectively. For example, Korea was assumed to be still under the Japanese rule according to the HYC system.

Subsequently, a plan to reclassify the entire Asian Collection into the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LCC) system was proposed in 2005. Due to a number of circumstances a major project of reclassification was deferred until the end of 2008. As the smallest size of the Asian Languages Collection, it was decided to convert the Korean collection first during the summer break of 2008/9 serving as a trial run for the two larger collections, Japanese and Chinese. Through a labour-intensive process, all the books on the Korean shelves were reclassified successfully by the beginning of 2009. Reclassification of the Chinese and Japanese collections continued through 2009 and was completed at the beginning of 2010.

Finally, although the Korean collection is comprised of entirely Korean-language materials, there are a large number of English language books and journals about Korea throughout the Library system in their relevant subject areas.

C. Collection Development

Collection development for the Korean collection is carried out primarily by the Korean Resources Librarian, in cooperation with Korean academic staff and the Asian Studies Librarian. The Korean Resources Librarian collects mainly Korean language items but deals

11) From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Harvard-Yenching_Classification

with Korea -related English language items from time to time. Selection of materials is done in line with the Library's Collection Management Plan¹²⁾, and is made from various sources (e.g. book catalogues, the Internet, personal recommendations) on the basis of any of these conditions.

- a. Research interests of Korean academic staff
- b. Subject areas of currently taught Korean courses
- c. Items requested by students for their research which comply with the Collection Management Plan

Along with the change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there are observed shifts in Asian studies paradigms, from the traditional areas which relied on language, history and humanities subjects. Collection management is responding to newly emerging research areas of the Korean programme and Korean studies. While maintaining development in the traditional areas, the Korean collection is developing resources on overseas Koreans, translation studies, and social sciences (management, economics, politics, etc.), and social changes in East Asian countries with particular attent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New Zealand and Asia.

D. Services of the Korean Collection

Apart from managing of the Korean collection, the Korean Resources Librarian provides other services to support and facilitate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i) Research Support

One of the essential services of the Korean collection is to support study and research of Korean academic staff and students at the University. For instance, the academic staff are informed of the arrival of new material pertinent to their research areas, and exchange ideas and opinions with the Korean Librarian about the development of the collection. Students may request material that is needed for their research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ir lecturer.

The Korean Librarian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llection management to support the research interest of academic staff. One of the strong research areas of the Korean programme

12) From the Library's *Collection Management Plan*, <http://library.auckland.ac.nz/about/biblio/cdp/coldev.htm>

at the UoA is studies on overseas Koreans such as Korean - Chinese (조선족), Korean - Russian (고려인), or Korean diasporas. To support this line of research a considerable body of items on these topics have been collected in the collection.

(ii) Reference and Information Skills Services

The Korean Librarian offers consultation and reference assistance to students, staff and other library users in both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The Asian Languages Collection has an open enquiry desk where users can approach freely during the office hours. The Korean Librarian answers queries at the desk and provide users with assistance for their research or in - depth consultation when necessary.

Development and presentation of library tutorials or seminars are also a responsibility of the Korean Librarian. The Korean Librarian, often in collaboration with the Asian Languages Collection team and Learning Services, creates and delivers tutorials for specific Korean courses or generic information literacy programmes to educate students in library research skills. The Librarian provides assistance to developing and maintaining the subject guide webpage for Korean studies as shown in Figure 4¹³⁾. This webpage serves as a portal to electronic resources for Korean studies when students and staff seek information for their research and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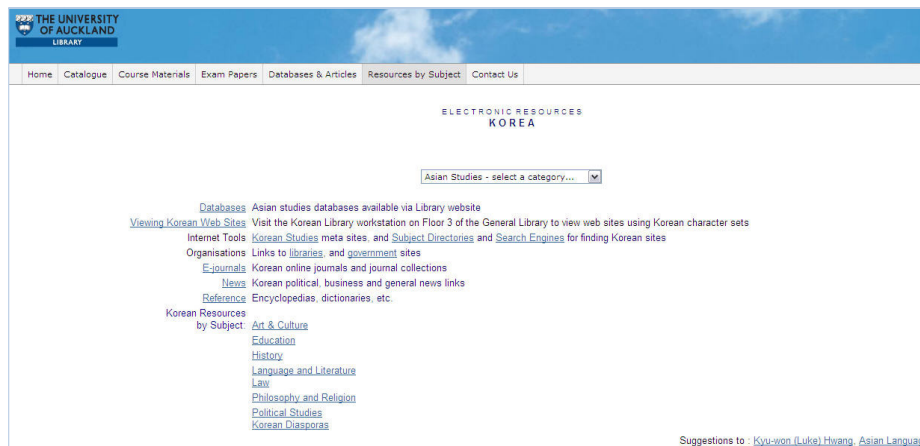


Fig. 4 Subject Guide webpage on Korean studies

13) From *Korean studies* webpage, http://www.library.auckland.ac.nz/subjects/asian/korea_menu.htm

Another service that the Korean Librarian may provide is hosting of visitors important to the Library or to the University from Korea or from another foreign country. The University receives a number of visits of scholars from Korean academic institutions or visitors from Korean libraries every year. When it is necessary, the Korean Librarian introduces the Korean collection to outside visitors and provides them with information on how to use the Library. This service may encourage cultural or academic exchange between the Library and overseas institutions.

Conclusion

This article has presented a general overview of the Korean collection in the University of Auckland Library as well as a brief introduction to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Auckland has the only academic Korean collection in New Zealand, and the Korean Resources Librarian performs a wide range of tasks to manage the collection and support Korean studies.

In the 21st century with widespread Internet availability and the exponential growth of electronic resources, the Korean collection must accommodate and adapt to changes and challenges in the era of Web 2.0 and other technological developments.

한국학 자료의 보고

- 국사편찬위원회 정보검색시스템

윤 소 영*

이 글에서는 한국역사정보화를 선도하는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의 정보검색시스템에 대해 소개한다. 국편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사 종합 연구·편찬기관으로서 한국사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편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검색시스템은 크게 역사포털인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www.koreanhistory.or.kr)과 원문제공시스템인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그리고 수집, 소장자료 검색시스템인 전자사료관시스템(archive.history.go.kr)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에 검색지원도구인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thesaurus.history.go.kr) 등을 제공하고 있다.

1.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한국 역사 자료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통합 검색 사이트이다. 역사 자료 정보화 사업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이루어졌고 따라서 전체 자료에 대한 통합 검색이 요구되었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이하,

*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정보실 사료연구위원

역통)은 다양한 사이트의 역사 자료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역사 자료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2010년 10월 현재 모두 24개 기관 29개 사이트에서 수집된 9,458,869건의 메타데이터가 연계되어 있다.

1.1 한국역사정보종합센터

한국역사분야 종합정보센터인 국편은 한국역사분야 지식정보자원관리에 대한 정책 및 전략의 개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관리·운영, 한국 역사자료의 체계적인 정보화 및 역사 관련 기관의 협조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편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2000~2009)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부터 기관 간 연계 포털 서비스를 시작하여 2004년에 연계 포털 서비스 시스템인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각 역사관련 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통합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역사종합정보센터는 역사포털인 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역사정보 DB 구축 및 제공을 위한 표준화, 시스템 연계를 위한 전문정보센터 기술지원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문회의, 전문정보센터 협의회 및 기술협의회의 등을 지원한다. 한적자료의 검색 지원을 위한 검색엔진의 개선, 전문정보센터의 원문정보검색시스템과 종합정보센터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통합메타데이터 요소와 통합디렉토리를 포함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연계 지침’의 작성 및 보급 등의 활동도 포함한다.

표 1 역통 연계 사이트

참여 기관	연계 사이트
경상대학교 문천각	남명학교문헌시스템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종합지식정보시스템
명지대학교 도서관	국제한국학연구소

참여 기관	연계 사이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아카이브즈
부산시민도서관	근대한일외교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한국경학자료시스템
	한국족보자료시스템
전북대학교 박물관	호남기록문화시스템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 자료마당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선총독부관보데이터베이스
종로도서관	고문헌 원문 검색 서비스
담양군	한국가사문학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	한국고전종합목록시스템
한국국학진흥원	옛문서 생활사 박물관
	유교넷
한국언론재단	고신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사지식정보시스템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24개 관련기관	29개 연계 사이트

1.2 역통시스템의 구성

역통의 메타데이터는 KHON(Korea History ONline)이라는 하나의 메타데이터 세트를 사용하며, 메타데이터의 작성 및 교환은 xml 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KHON 메타데이터에는 크게 11개 요소로, title(제목), creator(생성자), subject(주제), type(자료유형), identifier(식별자), publisher(발행자), date(날짜), description(요약정보), format(포맷), relation(관련자료), metaMetadata(메타데이터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역통 메타데이터 요소

	주요소	하위요소	출처	인코딩 스킴	
1	title(제목)	mainTitle(대표제목)	nca		1..1
		alternative(대체제목)	dc		0..n
2	creator(생성자)	author(작성자)	kh		0..n
		editor(편집자)	kh		0..n
		docSender(발신자)	kh		0..n
3	subject(주제)		dc	[역통디렉토리]	1..n
4	type(자료유형)				0..n
5	identifier(식별자)	uri(식별기호)		URI	1..1
		url(위치정보)	dc	URL	1..1
6	publisher(발행자)		dc		0..1
7	date(날짜)	issued(발행일)	dc	W3C-DTF	1..1
		created(생성일)	dc		0..1
		modified(갱신일)	dc		0..1
		docIssued(원자료발행일)	kh	YYYY-MM-DD를 기반 으로 음력윤달처리를 위한 형식 적용	0..1
		docCreated(원자료생성일)	kh		0..1
		dateEvent(사건발생일)	kh		0..1
8	description (요약정보)	abstract(초록)	dc		0..1
		tableOfContents(목차정보)	dc		0..1
9	format(포맷)	medium(파일형식)	dc	IMT	1..n
10	relation(관련자료)	isPartOf(부분자료)	dc	URI	0..n
		requires(의존자료)	dc	URL	0..n
11	metaMetadata (관리메타데이터)	mdCenter(메타데이터센터명)	nca	기관의 코드정보	1..1
		unit(단위)	kh	한자리 숫자	1..1

전문정보센터의 메타데이터 수집은 OAI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메타데이터 추출작성기와 메타데이터 수집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러한 메타데이터 추출, 수집, 서비스 등의 연계작업을 거쳐 이루어진다.

연계작업을 위한 연계조사자료 작성 및 원문DB 분석 등의 사전작업을 통하여 메타데이터 추출 룰을 작성하고, 전문정보센터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역통에 제공되는 메타데이터를 위한 메타데이터 테이블을 생성한다. 그 다음에는 메타데이터 추출작성기를 통해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 메타데이터 테이블에 저장하고 수집기를 통하여 역통에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역통에 전송된 메타데이터는 역통의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후 이용자에게 메타데이터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거친다.

표 3 역동 메타데이터 현황

기반명	디렉토리	합계	고도서	고문서	도서	문서	연속 간행물	고전 국역서	연구 자료	목록 해제	인물	지도	사전	연표	멀티 미디어 자료	유물-유적	금석문 자료
기반명	경상대학교 문천각	52,279	52,279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62,170			19,275	27,283	1759				13,853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	2,944															2,944
	국사편찬위원회	3,606,205	186,810	2,001	1,208,154	118,319	1,632,265	31,205	182,516	1,513	46,627			189,619	7,176		
		994,488	994,488														
		395,647						395,647									
	독립기념관	202,385			2,238	8,561	138,693		450						51,222	1,221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	22,884	21,956					928									
	동화농민혁명종합지식정보시스템	15,006			8,107				3,334					3,565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10,942			482										10,460		
기반명	민주학은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아카이브시스템	175,900				128,476									47,424		
	부산시민도서관 근대한일외교자료	5,733				5,73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031,470	836,628	13,355		69,943	37,282			66,941		5,754			1,567		
	상균관대학교 존경각	18,538	18,538														
		91,763									91,763						
	진북대학교 박물관 호남기록문화시스템	17,899		17,330		569											
	진행기념관	3,130															
	조선총독부관보데이터베이스	181,916					181,916				180		700		900	600	
	종로도서관 고문헌 원문 검색 서비스	755			122							633					
	한국가사문학	1,922	1,462	217								2			282	9	
기반명	한국고전번역원	823,770	458,512					363,598		1,574					86		
	한국고전적총합목록	330,171								330,171							
	한국국학진흥원	536				536											
		203,805	153,436	35,285	8,602						2,910			1,187		2,385	
	한국인문재단 고신문DB	520,569					520,56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사지식정보시스템	31,342			13,902		13,169			49	198			3,267	757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11,541									11,541						
기반명	왕실도서관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552,343	412,415	24,271									4,518		100,41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90,816									90,816						
합 계		9,458,869	3,136,524	92,459	1,260,882	359,420	2,525,653	791,378	198,640	410,921	246,347	6,389	5,218	197,638	220,241	4,215	2,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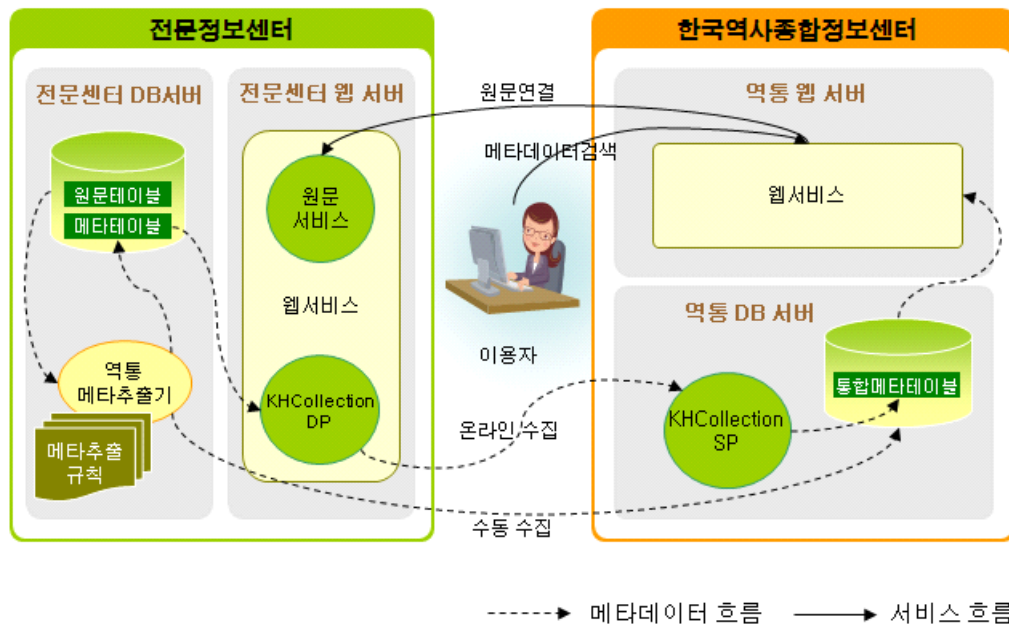


그림 1 역통 메타데이터 유통 구성도

1.3 정보검색 서비스

역통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는 크게 브라우징 서비스와 키워드 검색서비스 두 가지로 나뉘는데, 브라우징 서비스에는 통합디렉토리 서비스와 편년자료 서비스가 있다. 통합 디렉토리는 연계되는 역사자료를 중심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구성한 역통의 분류이다. ‘고도서 - 고문서 - 도서 - 연구자료 - 문서 - 연속간행물 - 목록·해제 - 고전국역서 - 인물 - 지도 - 사전 - 연표 - 멀티미디어자료’의 13개 대항목을 구분하고, 다시 중항목과 소항목까지만 분류함으로써 단순화시켰다. 또한 기관별 특성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사항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디렉토리 수정이 용이한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토록 함으로써 향후 조정에 대비하였다. 또한 고도서의 경우 사부분류법에 따르되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고문서의 경우 중분류를 없애고 문서 종류만을 표기함으로써 논쟁을 피하였다. 기존에 서비스되던 기관별 디렉토리는 그 항목을 살려둠으로써 기관의 요구에 부응코자 하였다. 이러한 분류법은 학술적인 분류방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실제 이용자들에게 있어서는 자료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간단하고 용이한 점이 있으리라 판단되며, 기관의 관리중심의 웹구정보다는 서비스 중심의 웹체제로 옮겨가는

정책적 목표와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이후에 연계 기관이 추가되고 자료가 다양화 되면서 ‘유물유적 - 금석문’이 추가되어 15개의 대항목을 가진 통합디렉토리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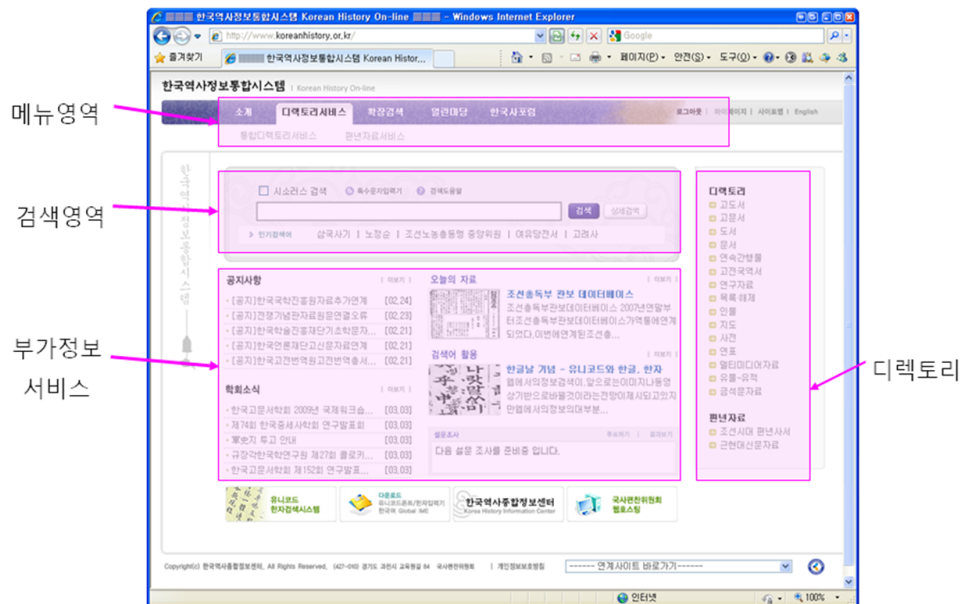


그림 2 역통 메인화면

키워드 검색서비스는 통합검색과 상세검색, 그리고 편년자료검색으로 구성되는데, 통합 검색은 전문정보센터의 메타데이터 검색뿐만 아니라 역통 웹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자료’, ‘검색어 활용’ 등의 부가서비스 등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검색을 실행한다. 상세검색은 메타데이터 요소별, 전문정보센터별, 그리고 디렉토리별로 조건을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편년자료검색은 조선시대 편년사서와 근현대 신문자료라는 두 종류의 자료군을 대상으로 왕력이나 서기년 등의 연도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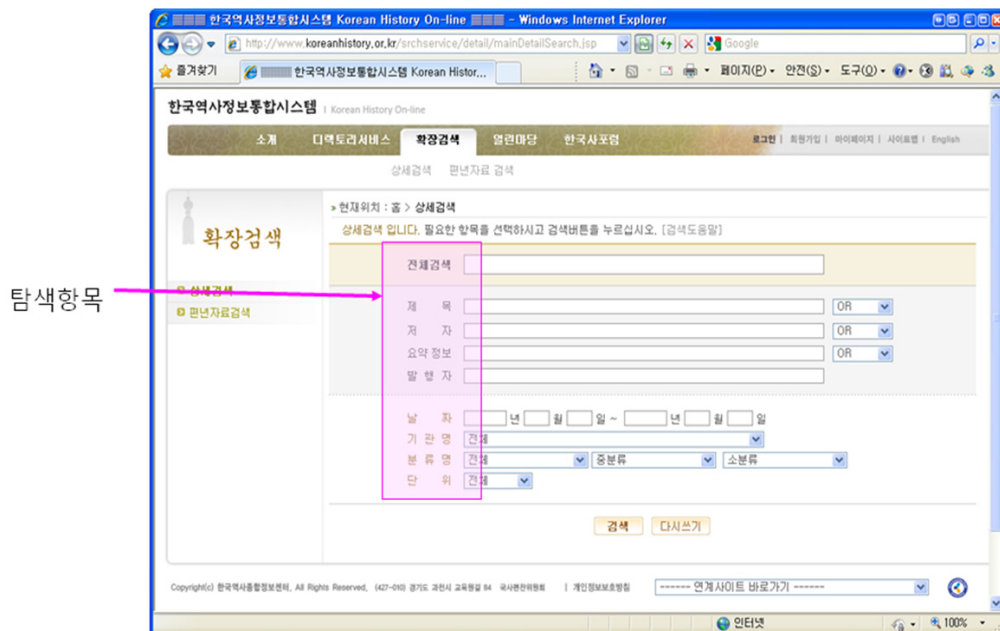


그림 3 역통 상세검색

편년자료서비스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일성록 등과 같은 조선시대 편년사서를 대상으로 왕대별, 연도별 브라우징을 제공하는 조선시대편년사서와 근현대 신문자료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우측 상단의 아이콘을 이용하여 편년자료검색과 서로 유기적으로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있어, 정보검색 서비스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브라우징 서비스와 키워드 검색 서비스의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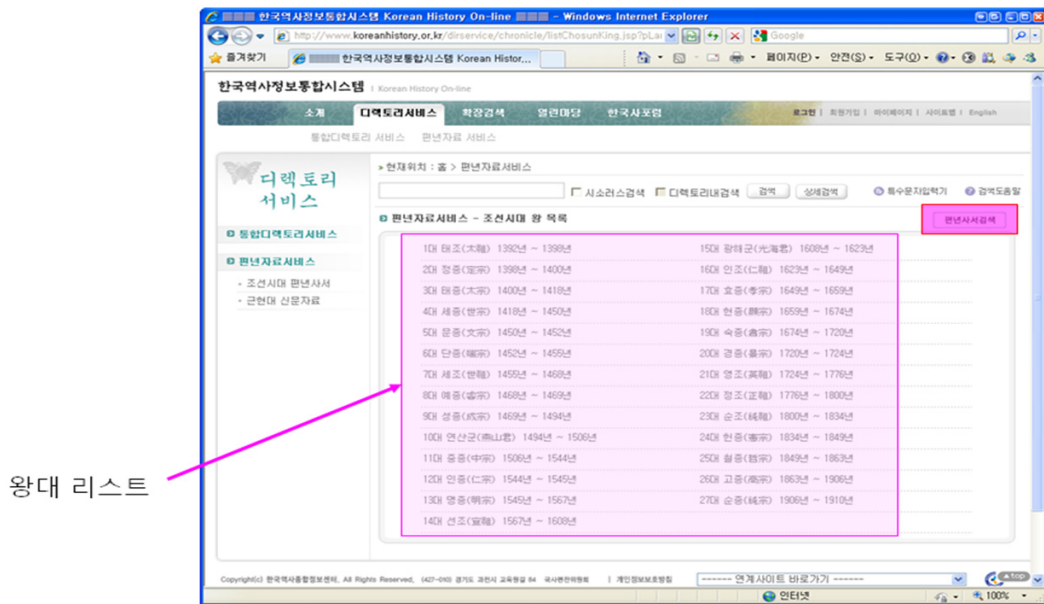


그림 4 역통 조선시대편년자료 디렉토리



그림 5 역통 근현대 신문자료 디렉토리

2.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1.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현황

국편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사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역사 자료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1997년 3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000년부터 국가적 차원의 지식 정보에 관한 관심과 지원으로 ‘지식정보자원 관리사업’을 추진하여 그 결과 총 51종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현재에 이르렀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 역사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료로 보는 역사 지식을 제공하여 국민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한국사데이터베이스는 한국사 및 한국문화 관련 교육 자원의 확대와 대국민 문화수준 향상의 토대가 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인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비롯하여 조선 중기 이후 국가의 최고의결기관인 비변사에서 처리한 사건을 기록한 비변사등록 등 조선시대의 역사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고려시대를 아는데 기본이 되는 역사서인 고려사, 조선시대 국가기관이 수발시킨 문서들을 모아 놓은 각사등록을 비롯하여, 독립에 대한 조상들의 열망과 희생이 묻어있는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대한민국 건국의 역동성이 생생히 숨 쉬는 이승만서한철, 대한제국부터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초기에 이르는 관료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직원록, 역사 인물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근현대인물자료, 동아일보, 신한민보, 개벽, 대조선독립협회회보 등 각종 근현대신문잡지자료 등의 역사 기록물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 한국 고대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해동고승전, 입당구법순례행기와 같은 접하기 힘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고대 사서에서 한국 관련 내용을 발췌한 자료도 있고 광개토대왕릉비 등 고대사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금석문, 목간자료 등을 디지털화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소개책자, 2010).

표 4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서비스목록

연번	자료명	언어 유형	원문텍스트	원본이미지	색인어	번역
1	각사등록	한문	○			
2	각사등록 근대편	국한문	○			
3	고려사	한문	○	○		
4	고종시대사	국문	○			
5	국내외항일운동문서	일문		○	○	
6	국역비변사등록	국문	○	○		
7	근대 한일외교자료	일문		○	○	
8	대마도종가문서자료집	일문	○			
9	동학농민혁명사 일지	국문	○			
10	동학농민혁명 연구논저	국문/한문			○	
11	동학농민혁명 자료총서	국문/한문	○	○		
12	미군정기 군정단·군정중대 문서	영어		○	○	
13	반민특위조사기록	국문	○			
14	비변사등록	한문	○	○		△
15	사진유리필름자료	한문		○	○	
16	삼국사기	한문	○	○	○	○
17	삼국유사	한문	○	○	○	○
18	승정원일기	한문	○	○	○	
19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한문	○	○	○	○
20	유엔의 한국문제 처리에 관한 미국무부의 문서	영문		○	○	
21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관계 문서	영문		○	○	
22	이승만서한철	영문		○	○	
23	일본육국사 한국관계기사	한문	○		○	○
24	일제시기 희귀자료	일문		○		
25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국문	○		○	
26	입당구법순례행기	한문	○	○	○	○
27	자료대한민국사	국문	○			
28	조선왕조실록	한문	○	○	○	○
2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일문	○	○		○
30	중국정사조선전	한문	○			○
31	중추원조사자료	일문	○		○	○

연번	자료명	언어 유형	원문텍스트	원본이미지	색인어	번역
32	직원록자료	국문	○		○	
33	친일파관련문헌	한문	○			
34	통감부문서	일문	○			○
35	한국고대금석문자료집	한문	○	○	○	○
36	한국고대사료집성 중국편	한문	○			
37	한국고지도목록	국문	○		○	
38	한국근대사자료집성	일문	○			
39	한국근대지도자료	일문		○		
40	한국근대지리지자료	일문		○		
41	한국근현대신문자료	국문/한문/일문		○	○	
42	한국근현대인물자료	국문	○		○	
43	한국근현대잡지자료	국한문/한자	△		○	
44	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	국문	○		○	
45	한국독립운동사자료	국문/국한문/일문	○		○	○
46	한국사료총서	한문	○		○	
47	한국사연표	국문	○			
48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일문	○		○	○
49	해동고승전	한문	○	○	○	○
50	해외사료총서	국문/일문/러시아어	○			○
51	휴전회담회의록	영문		○	○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원문 텍스트(full-text) 자료와 원문 이미지 자료이며, 원문 이미지의 경우에도 이미지와 더불어 원문에 대한 기사 제목, 필자, 작성일의 기본적인 메타데이터와, 키워드에 해당하는 인명, 지명, 관서, 학교, 단체, 회사조합, 사건, 관직, 서명, 국명, 연호 등의 색인어를 추출하여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디지털 자료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검색 결과로 제공된 원문정보(텍스트, 이미지)를 바로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원문への 접근이 편리해졌다.

2.2 정보검색서비스

현재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검색서비스는 키워드 검색서비스와 브라우징서비스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키워드 검색서비스는 통합검색과 상세검색, 그리고 연도별 검색으로 구분되는데, 통합검색은 자료의 제목과 내용을 망라한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검색하는 것이다. 특별하게 찾고자 하는 용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여 검색하면 된다. 상세검색은 각 자료의 특성에 맞게 추출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대상으로 검색을 제공한다. 연도별 검색 서비스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편년 자료와 같이 날짜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날짜별 검색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림 6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메인화면

브라우징 서비스에는 4가지 기준, 즉 형태별, 시대별, 주제별, 수집·소장처별에 의해 디렉토리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가 국역과 원문으로 두 가지 존재한다면, 본문의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국역/원문보기’ 단추를 클릭하여 두 화면을 전환하면서 볼 수 있다.



그림 7 국역, 원문보기 화면

2.3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구축사업은 2001년 한국역사기초시스템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이용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역사용어 검색 사전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한국역사용어를 수집, 분류하여 시소러스 검색 사전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방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검색하여 정보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국편의 다양한 정보검색시스템을 통해 이용 가능한 방대한 역사 자료들을 용어 관계에 의한 확장 및 통제어 검색을 통해 효율적으로 통합 검색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사 연구를 위한 자료제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였다.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를 별개 사이트로 구성하여 시소러스 용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종 용어 보기 화면에서 검색버튼을 통해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 12월말 현재 구축된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사전의 용어 개수는 총 5만여 단어, 인명·지명·서명·문화제는 총 1만여 단어로 용어 추출과 선정은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및 역사 사전류, 국편의 원전(原典)DB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용어의 주제별 분류(13개의 주제와 인명·지명·서명·문화제)를 통해 정확한 역사용어를 알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였다. 역사용어의 특성상 한자(漢字)는 유니코드를 사용하여 글자 변환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였다.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를 기본으로 영문시소러스도 2005년부터 3개년에 걸쳐 일부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림 8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검색화면



그림 9 시소러스를 이용한 질의확장 검색

3. 전자자료관시스템

소장자료와 수집자료의 정리 및 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개발한 국편의 수집자료 관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제표준과 학문적 성과에 입각한 자료의 정리 체계화와 자료관리 업무의 전자적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꾀한다. 둘째, 자료조사, 수집, 정리, 가공, 이관업무에 대한 시스템기반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료관리와 도서관리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디지털 매체 자료의 보존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자료의 체계적인 목록제공에서 원문제공에 이르는 대국민 서비스의 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

전자자료관은 국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출처 혹은 특정주제에 따라 계층적으로 분류, 정리하여 목록과 함께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의 공공기관, 단체, 가문, 개인 소장자료를 수집처에 따라 분류 정리한 <국내수집자료>와 세계 각국의 자료소장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류 정리한 <국외수집자료>, 그 밖에 구술자료, 사진자료, 민주화운동자료 등과 같이 다양한 소장처로부터 수집하여 특정주제에 따라 분류 정리한 <주제별자료>가 있다.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위의 자료들을 자료구분별, 대상시기별로 정리한 분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구분별 분류서비스는 자료의 유형에 따라 고서, 고문서, 근현대문서, 단행본, 연속간행물, 지도도면, 구술자료, 사진시각자료, 녹음영상자료, 박물관자료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상시기별 분류서비스는 자료가 생산된 시기를 삼국 이전,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으로 구분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온라인전시는 전자자료관시스템에 구축된 자료를 선별하여 시의성 있는 주제의 콘텐츠를 구성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각 온라인전시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원하는 이용자를 위해 콘텐츠별 해제와 목록을 첨부하고 각종 데이터, 이미지 등을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10 전자사료관 메인화면

4. 앞으로의 과제

4.1 디지털콘텐츠 기획

원문데이터베이스 위주의 정보검색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 운영되면서 원문 그대로의 DB를 넘어서 디지털콘텐츠라는 이름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가공하여 쉽고 역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웹콘텐츠 기획에 대한 경험이 없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또한 기관 간의 대상 콘텐츠 중복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 또한 기관간의 협력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며, 역사분야 웹콘텐츠 기획자의 양성에 있어서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풍부한 역사 콘텐츠 접근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보 공유와 활용을 위한 협력의 토대를 기반으로 역사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참여 확대도 필요하다.

4.2 정보검색 서비스 개발

국편은 지난 10년간의 정보검색시스템 구축, 운영의 경험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료의 활용 및 이용자 성향을 반영한 정보검색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2010년에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시맨틱 웹 검색서비스 사업’을 통해 서비스 온톨로지 구축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다차원의 지능형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대별 혹은 주제별 특정기준에 맞는 자료군을 대상으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자동분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 및 인물을 중심으로 한 사회연결망 서비스 또한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진보된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는 다양한 접근점을 가지고 보다 편리하게 역사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nformation Retrieval System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SoYoung Yoon*

The NIKH contributes to the intensification and development of historical research by facilitating research, collection, preservation,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various historical materials that are essential in the efforts to systemize Korean history. The NIKH provides access to important materials on the web, such as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s well as seminal primary source materials and other information on Korean history off line. On the one hand, the NIKH serves as the central hub of Korean history information, providing enormous databases for researchers and citizens online.

The Digital Library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ka, NIKH) is composed of several kinds of information retrieval systems such as KHON (the Korean History Online), KHDB (the Korean History DataBase), KHAS (the Korea History Archive System), and so on. The KHON (aka. Han'guk Yoksa Chongbo T'onghap System; www.koreanhistory.or.kr) is a history portal providing the search service for various history data of the professional center. The KHDB (db.history.go.kr) is a full-text database for Korean historical materials. The KHAS (archive.history.go.kr) is a collection retrieval system of the NIKH and Korea History Thesaurus (thesaurus.history.go.kr) is a retrieval aids tool which is designed for information retrieval.

* Researcher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1. Korean History ON-line

The KHON is a history portal system managed by the NIKH as a Korean History Information Center and provides integrated search services on historical materials stored at many information centers all over Korea. The KHON covers numerous materials from ancient to modern history which is stored at information centers and it only provides links to centers' websites.

The historical-materials-digitizing projects have been done simultaneously by various organizations and the integrated search service is required to advance the user convenience so that the KHON is designed to accomplish those aims. The KHON database has 9,458,869 metadata records collected from 24 organization members / 29 sites (As of October, 2010).

1.1 Korean History Information Center

The Korean History Information Center was established with the aim of efficiently developing and managing knowledge resources on Korean history as authorized by the National Knowledge Resources Management Law. As the NIKH was designated as the Korean History Information Center for National Knowledge on History in March 2001, it formulates policies and strategie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knowledge resources in the field of Korean history, operates and manages the Integrated Korean Historical Data System, compiles database of Korean history, and promotes cooperation among history-related organizations.

The Korean History Information Center manages the KHON, supports standardization for history DB construction, performs a role of the IT support for participants, and runs the Advisory, professional information center meetings, IT meetings. In addition, the role covers the search engine upgrade for Chinese characters, as well as activities for prepar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KHON Guideline', including the metadata standard and service directory.

Table 1 KHON Participants

Organization	Si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Munchungak	Nammyonghak Archives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Republic of Korea	Merits Archives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Epigraph Information System

Organization	Sit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Korean History Database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Independence Hall of Korea	The History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Online
Dongguk University Library	Information for Korean Buddhist Culture
National Commission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formation System
MyogJi University Library	Academia Coreana
Korea Democracy Foundation	Korea Democracy Archives
Busan Metropolitan Simin Municipal Library	Modern Korea-Japan diplomacy Archiv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yujanggak Institute Korea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Jon'gyeong'gak	Complete Collection of the Korean Study of Confucian Classics
	Korean genea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useum	Records of Korean Southwestern region
War Memorial of Korea	Library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Inspection of Collaboration for Japanese Imperialism(PCIC)	Official gazette,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Jongno Public Library	Old Map Archives
Damyang-gun	Korean lyrics Literature
Korean Classics Research Institute	Korean Classics Research DB
National Library	KORCIS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Life-history Museum
	UgyoNet
Korea Press Foundation	Old Newspapers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Women's History Knowledge System
Korea Research Foundation	Korea Research Memory
Academy of Korean Studies	Database of antique literature housed at the Jangseogak Royal Library
	Korean People Information
24 organizations	29 sites

1.2 KHON System

The KHON Metadata is designated as one metadata set based on DC Metadata Set and XML format adopted as standard description for metadata creation and sharing among systems. It contains 11 elements namely, title, creator, subject, type, identifier, publisher, date, description, format, relation, metaMetadata.

Table 2 KHON Metadata Elements

	Main element	Sub element	src	Encoding scheme	Cardinality
1	title(題目)	mainTitle(代表題目)	nca		1..1
		alternative(代替題目)	dc		0..n
2	creator(生成者)	author(作成者)	kh		0..n
		editor(編纂者)	kh		0..n
		docSender(發信者)	kh		0..n
3	subject(主題)		dc	[KHON Directory]	1..n
4	type(資料類型)				0..n
5	identifier(識別者)	uri(識別記號)		URI	1..1
		url(位置情報)	dc	URL	1..1
6	publisher(發行者)		dc		0..1
7	date(日字)	issued(發行日)	dc	W3C-DTF	1..1
		created(生成日)	dc		0..1
		modified(更新日)	dc		0..1
		docIssued(原資料發行日)	kh	YYYY-MM-DD (Lunar, Leap year)	0..1
		docCreated(原資料生成日)	kh		0..1
		dateEvent(事件發生日)	kh		0..1
8	description(要約情報)	abstract(抄錄)	dc		0..1
		tableOfContents(目次情報)	dc		0..1
9	format(型式)	medium(file型式)	dc	IMT	1..n
10	relation(關聯資料)	isPartOf(部分資料)	dc	URI	0..n
		requires(依存資料)	dc	URL	0..n
11	metaMetadata(管理用)	mdCenter(center name)	nca	Organization Code	1..1
		unit(單位)	kh	1 : title 2: article	1..1

Basically, the KHON follows the OAI (Open Archives Initiative) structure and the data communication protocol applies OAI-PMH (Open Archives Initiative - Protocol for Metadata Harvesting) as well. Therefore, extracting and collecting of participants' metadata proceeds automatically based on the OAI methods. The KHON system works through 6 steps. The first step is that the KHDP (organization member) reports to the KHON about system/DB information. The next step is that the KHON manager analyzes the KHDP report in terms of the db metadata and system environment. Then, the KHON manager creates a rule for the Metadata Extractor in order to extract the KHDP metadata usually by item or group. While testing the rule, the KH Collection program is installed at the KHDP web-server and the MD Extractor program at the KHDP db-server. Once finished the test of extract and collect, the program automatically transfers metadata to the KHON server by status of data as insert, modified and delete. In the case of the initial huge amount of data, the data is collected offline because it is not appropriate to transfer automatically by this protocol. At the final step, the KHON executes metadata indexing and loading on the system and then the KHON metadata search service is provided to the public.

Table 3 KHON Metadata

Directory		Total	Old Books	Old Documents	Books	Documents	Periodicals	Classical Translations	Research Data Bibliography	Biography	Map	Dictionary	Chronology	Multimedia Data	Historical Relics and Sites	Epigraph
Si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Munchungak	52,279	52,279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Korea	62,170			19,275	27,293	1,759			13,853						2,944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944														
	Korean History Database	3,606,205	186,810	2,001	1,208,154	118,319	1,632,285	31,205	182,516	1,513	46,627		189,619	7,176		
Independence Hall of Korea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994,488	994,488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395,647						385,647								
DonggukUniversity Library		202,385			2,238	8,561	138,693		450					51,222	1,221	
		22,884	21,956					928								
Myongji University Library	Commission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15,006			8,107				3,334				3,565			
		10,942			482									10,460		
Seoul National University Kyujanggak		1,031,470	836,628	13,355		69,943	37,282				5,754			1,567		
	Complete Collection of Confucian Classics	18,538	18,538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useum		91,763								91,763						
		17,899		17,330		569										
Korean Classics Research Institute		181,916					181,916									
		755			122						633					
National Library		1,922	1,462	217							2			232	9	
		823,770	458,512					363,598	1,574					86		
Korean Studies		330,171							330,171							
		536				536										
Korea Press Foundation		203,805	153,436	35,285	8,602					2,910			1,187		2,385	
		520,569					520,569									
Academy of Korean Studies		31,942			13,902		13,169		49	198			3,267	757		
		11,541							11,541							
Total		9,458,869	3,136,524	92,459	1,260,882	339,420	2,325,653	791,378	198,640	410,921	6,369	5,218	197,838	220,241	4,215	2,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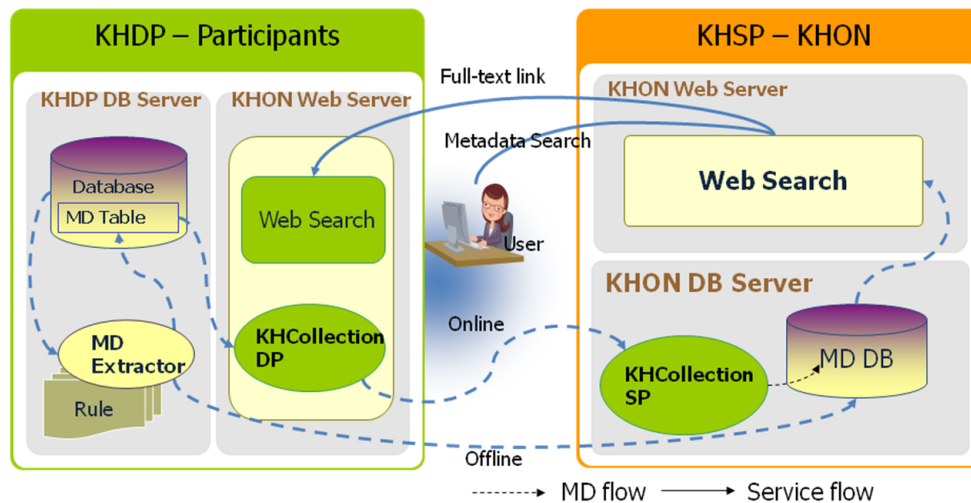


Fig. 1 KHON Metadata Flow

1.3 KHON Service

The KHON service is generally divided into two search services; one is the Keyword Search Service and the other is the Browsing Service. On the Browsing Service, there are the KHON's Directory Service and Chronicle Service. The KHON provides a large directory of history website links to see the status and location of historical categories at a glance. This directory services is composed of three main categories. The first category contains a total of 15 categories including Old Books, Old Documents, Books, Documents, Periodicals, Classics, Research Data, Bibliographies and Annotated Catalogues, Biographies, Maps, Dictionaries, Chronology, Multimedia data, Historical Relics & Sites, Epigraph. The second and third categories show brief descriptions of each item for user convenience.



Fig. 2 KHON Main Page

The Keyword Search serves the Basic Search, Advanced Search and Chronicle Search. The Basic Search covers the KHDP Metadata, as well as the KHON's Additional Information Service including Today's Issue and Search Term. The Advanced Search assigns the field conditions such as the MD element, organization, and directory. The Chronicle Search is a unique search service that uses conditions such as the lunar calendar dates, the reign of Kings, and sources. On the Chronicle Search, there are two kinds of services: the Chronicle Service of Joseon Period and the Newspaper Articles Service of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

The Chronicle Service of Joseon Period allows the users to make a search with the following information: the source, reign of King or year. The Newspaper Articles Search is available by the newspaper and date (lunar and solar calend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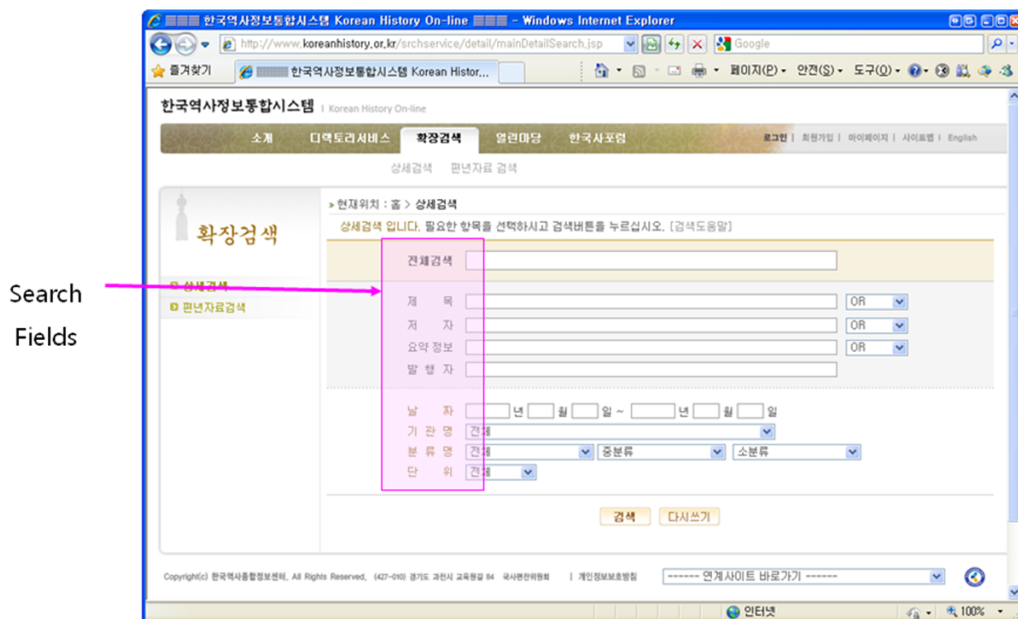


Fig. 3 KHON Advanced Search

Using the Chronicle Service of Joseon Period, users can search for materials such as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朝鮮王朝實錄) / Korean Edition, the Diary of the Royal Secretariat (承政院日記) / Korean Edition, the Records of the Border Defense Council (備邊司謄錄) / Korean Edition, the Records of Daily reflections (日省錄), the Daily Records of the Cabinet (內閣日曆). The Newspaper Articles Service of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 holds the articles of the Gongnip Sinbo, Sinhan Minbo, Sidae Ilbo, Jungoe Ilbo, ChoongAng Ilbo, Donga Ilbo newspapers, and so on.



Fig. 4 KHON Joseon Chronology Directory



Fig. 5 KHON Newspapers Directory

2. Korean History DataBase

2.1. Overview

The NIKH began the KHDB project in March, 1997 on the basis of the historical material digitizing plan established to aim at the effective management and rapid service for the information age. Since 2000, the NIKH built 51 databases on Korean history through the interest and support as a part of the National Knowledge Resources Management (NKRM) Project authorized by the National Knowledge Resources Management Law. The KHDB is contributing to the Korean history research and expanding public interest in the history by providing wide ranging Korean historical materials. In addition, the KHDB has formed the basis of expansion of Korean history and Korean culture education resource, as well as improvement of people's cultural level.

Through the KHDB, users can have access to the digitalized information system for 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and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which had been included i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and the Records of the Border Defense Council, an important historical source on politics and national defense in the lat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The KHDB serves Goreosa (高麗史), which is a basic historical material of Goryeo Dynasty Periods, the Records of Public Institution of the Joseon Dynasty (各司謄錄), the Material on the History of Korean People's Independence Movement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which is a compilation of the translation of the Japanese records of interrogations and trials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leaders, the Letters of Sung-man Rhee (Yi, Seungman, the First President of Republic Korea) (李承晩書翰綴), the Database of Public Officer from 1908 to 1952 (職員錄資料), which are from the Korean Empire Period to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Personal Data of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 (韓國近現代人物資料), the Newspaper of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 (韓國近現代新聞資料), and so forth. In addition, it provides Samguk Sagi (三國史記,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and Samguk Yusa (三國遺事,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for basic history material of the Korean ancient era, Haedong Goseungjeon (translated most commonly as the "Lives of Eminent Korean Monks") was a compilation of mostly Korean Buddhist hagiographies, notably of famous monks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of Korean history, and Epigraph and Mokgan like the Monument of the King Gwang-gae-to (廣開土大王陵碑) (KHDB brochure, 2010).

Table 4 KHDB Items

No.	Item	Lang.	Full-text	Image	Index	Trans.
1	各司謄錄	漢文	○			
2	各司謄錄 近代編	國漢文	○			
3	高麗史	漢文	○	○		
4	高宗時代史	國文	○			
5	國內外抗日運動文書	日文		○	○	
6	國譯 備邊司謄錄	國文	○	○		
7	近代 韓日外交資料	日文		○	○	
8	對馬島宗家文書資料集	日文	○			
9	東學農民革命史 日誌	國文	○			
10	東學農民革命 研究論著	國文/漢文			○	
11	東學農民革命 資料叢書	國文/漢文	○	○		
12	美軍政期 軍政團·軍政中隊 文書	英文		○	○	
13	反民特委調查資料	國文	○			
14	備邊司謄錄	漢文	○	○		△
15	寫真琉璃film資料	漢文		○	○	
16	三國史記	漢文	○	○	○	○
17	三國遺事	漢文	○	○	○	○
18	承政院日記	漢文	○	○	○	
19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漢文	○	○	○	○
20	UN의 韓國問題處理에 關한 美國務部の 文書	英文		○	○	
21	UN韓國臨時委員團 關係 文書	英文		○	○	
22	李承晚書翰綴	英文		○	○	
23	日本六國史 韓國關係記事	漢文	○		○	○
24	日帝時期 稀貴資料	日文		○		
25	日帝侵略下36年史	國文	○		○	
26	入唐求法巡禮行記	漢文	○	○	○	○
27	資料大韓民國史	國文	○			
28	朝鮮王朝實錄	漢文	○	○	○	○
2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日文	○	○		○

No.	Item	Lang.	Full-text	Image	Index	Trans.
30	中國正史朝鮮傳 譯註	漢文	○			○
31	中樞院調查資料	日文	○		○	○
32	職員錄資料	國文	○		○	
33	親日派關聯文獻	漢文	○			
34	統監府文書	日文	○			○
35	韓國古代金石文資料集	漢文	○	○	○	○
36	韓國古代史料集成(中國篇)	漢文	○			
37	韓國古地圖目錄	國文	○		○	
38	韓國近代史資料集成	日文	○			
39	韓國近代地圖資料	日文		○		
40	韓國近代地誌資料	日文		○		
41	韓國近現代新聞資料	國文/漢文/日文		○	○	
42	韓國近現代人物資料	國文	○		○	
43	韓國近現代雜誌資料	國漢文/漢字	△		○	
44	韓國近現代會社組合資料	國文	○		○	
45	韓國獨立運動史資料	國文/國漢文/日文	○		○	○
46	韓國史料叢書	漢文	○		○	
47	年表	國文	○			
48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日文	○		○	○
49	海東高僧傳	漢文	○	○	○	○
50	海外史料叢書	國文/日文/露文	○			○
51	休戰會談會議錄	英文		○	○	

The KHDB provides full-text DBs and image DBs. The provided images have indexes including the name, place, organization, school, company union, event, government service, book, country, reign-style, etc. so that images can be searched more easily and conveniently. In addition, access to full-texts became easier by allowing users to immediately print and sav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search results.

2.2 KHDB Retrieval Service

The KHDB service consists of two parts: the Keyword Search Service and the Browsing Service. The Keyword Search is divided into the Basic Search, Advanced Search and Chronicle Search. The Basic Search covers the general KHDB information including titles and contents. The Advanced Search assigns field conditions by each item which has unique metadata elements extracted according to item attributes. The Chronicle Search provides services by date on all items, which hold the date information.



Fig. 6 KDB Main Page

The Browsing Service provides information with 4 different standards: type, period, subject, and collector/holder. If there are both Korean translation texts and original texts, the screen displays both versions at the same time using a switch button ‘국역/원문보기’ in the top right-hand cor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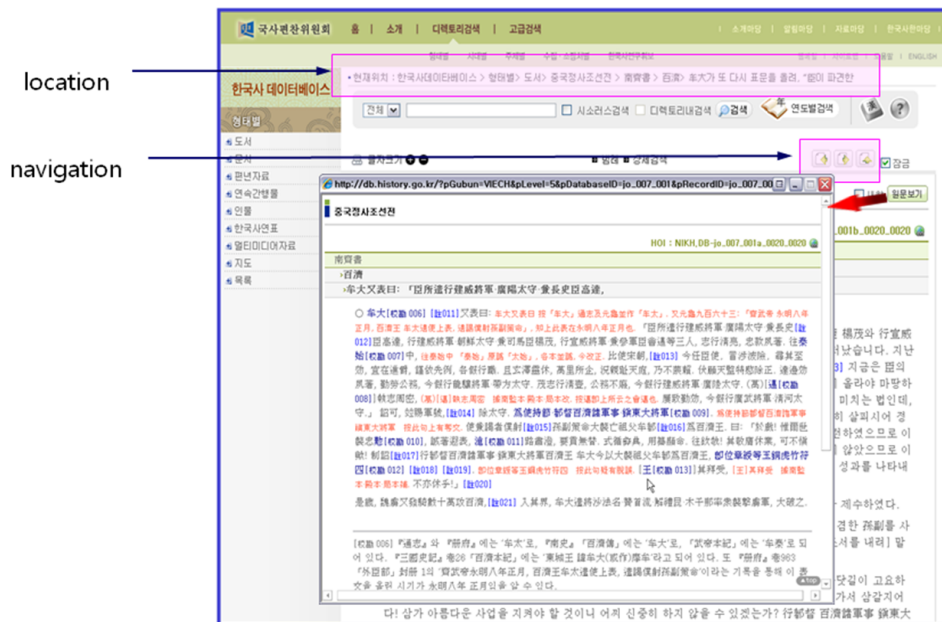


Fig. 7 Original Text and Translation

2.3 Thesaurus of Korean Historical Terms

Since 2001, the Thesaurus of Korean Historical Terms has been developed in order to build an efficient search system for historical information and to serve as the foundation for the electronic dictionary of Korean historical terms. The total number of terms is approximately fifty thousand and the number of names, places, and cultural assets is totally around 10 thousand. Terms are extracted and selected from middle/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history dictionaries, and DBs managed by the NIKH. Users, who don't know exact terms can easily gain access to the thesaurus through the directory with 13 subjects, names, places, and cultural asset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historical terms, which consist of Chinese characters, the Thesaurus system applies the Unicode and carries out the character conversion smoothly.

In 2005, the English version project began as a follow-up process of the Thesaurus Project of Korean Historical Terms in Korean, constructed from 2001 to 2005. It extracted samples from romanized Korean historical terms and history-related books published in English inside and outside of Korea. This project will extend into the extraction of romanized Korean

historical terms from various thesis and books written in English, with explanations of the terms year by year. This project aims to collect Korean historical terms and develop a thesaurus of them so that Korean historical terms standardized in English can be made in order to set the base to prepare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historical and cultural information. By transcribing and providing the standardized Korean historical terms using the Latin alphabet as sugges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Notification No. 2000-8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July 7, 2007), a translated search system (thesaurus) will be constructed in which Korean historical terms are translated into English and provided through the Internet for foreigners to access Korean historical information easily. Also to be provided will be various cases of romanizing Korean and their authority for the Korean historical terms to prepare an intellectual base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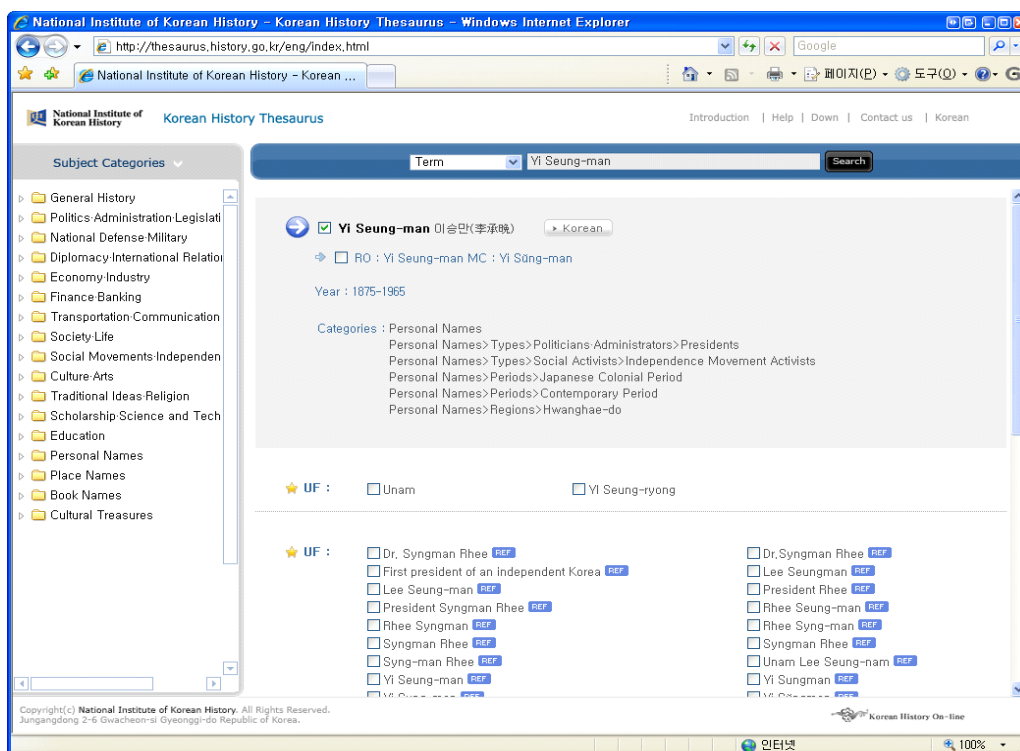


Fig. 8 Thesaurus for Korean History Term



Fig. 9 Query Expansion Search Using Thesaurus

3. Korean History Archive System

The KHAS, developed to be consistent in organizing and managing holdings and collected materials, has following objectives as follows: first, to systematize organization of materials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and academic achievement and to maximize effectiveness of work through the systematic administration on the materials management task; second, to reengineer the business process, composed of survey, collecting, organization, digitizing, preservation, and transfer, and to build the effective integrated system related to managing materials and books; third, to secure the public service competitiveness for historical materials with preservation and service work flow of digital information

Archivists hierarchically classify and organize the NIKH's materials according to their source or subject and then the full-text images of those are provided with bibliographical records by the KHAS. There are several kinds of materials, organized by its subject <Collection and Organiz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in Korea>: survey and create database of historical materials held by local governments, monasteries, provincial [Confucian] schools,

families, and individuals in Korea. <Collecting and Organizing Historical Materials outside Korea>: survey and create database of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historical materials held in foreign states and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etc. In addition, <Materials by subject>: Oral History by collecting and compiling experience and memory of diverse historical figures, this project will produce historical materials that fill the void and complement the written documents, Picture Archive, and materials related to democratization. For a detail diverse service, above materials are divided and classified by type, and period directory service classified materials, according to types such as old books, old documents, documents, books, periodicals, map, oral, picture, recording, etc. Another directory service classified materials, according to date including before the Three Kingdoms, the Three Kingdom, south/north periods, the Goryeo Dynasty, the Joseon Dynasty, the Korean Empire,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Korea.

Online Exhibition provides contents by choosing KHAS materials in terms of timeliness of subject. Along with this, each content has Catalogue and Bibliographical Introduction and presented with various data/images for a detail service.



Fig. 10 KHAS Main Page

4. Further Development

4.1 Digital Content Plan

As the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became stable with the full-text database, the DB is making progress toward the processed digital contents which offer dynamic and easy access to users. In the process, trial and error procedures are ongoing due to the lack of experience on planning the Web Contents and there are still problems with the contents duplication among organizations. Through the cooperation and discussion among organizations, these problems must be resolved and to make further efforts on training the Web Content Planners as well. The KHON's members have to encourage other history-related institutions to share their historical contents on the basis of cooperation to enrich the DB service for the users.

4.2 Information retrieval service Plan

The NIKH has offered the stable service with various experiences of the IR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ver the past 10 years and is trying to develop the IR service reflecting materials utility and user inclination continuously. In 2010, we are making an effort to provide multi-dimensional intelligent search service with building the service ontology on the 'KHON semantic web search service project'. Along with this, research is continuing on services such as the clustering algorithm and social network with people as the center. These advanced services will make the system much more convenient so that historical materials are more useful with various access points.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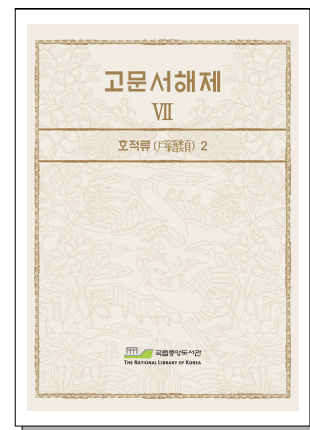
(출처: 『도서관계』 184-187호)



도서관연구소 {고문서해제 Ⅶ: 호적류 2} 발간

고전운영실에서는 2010년 7월 『고문서해제 Ⅶ: 호적류 2』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고문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서 생산되는 1차 사료로 특히 호적류 자료는 조선시대 신분구조와 신분변동, 가족관계 등 사회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이다. 호적은 가(家)를 단위로 하여 그 가(家)에 속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가족제도의 기본단위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간하는 『고문서해제 Ⅶ』은 작년에 이어 준호구(准戶口)와 호구단자(戶口單子) 등 호적류 950종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고, 474종의 주요 호적류에 대해서는 간략한 해제와 더불어 원본 사진을 게재하였다.

특히 이번 자료집에는 한성부(서울)에서 발급한 호적자료가 270여 건 수록되어 있다. 한성부는 국가의 호적사무를 관장 하였기에 다른 지방 군현에서 발급한 호적자료보다 기재 양식이나 내용이 매우 충실하고, 아울러 조선후기 한성부 주민들의 다양한 주거 양상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고문서해제 표지>

● 문의: 도서관연구소 (전화: 82-2-590-0507, 이메일: kimhyo777@korea.kr)



내 손 안의 도서관,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 “국립중앙도서관, 모바일 웹 서비스(m.nl.go.kr) 오픈” –

국립중앙도서관은 2010년 5월부터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모바일 웹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데 이어, 이를 확대하여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모바일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모바일 웹 서비스는 오른쪽 화면에서 보듯이 이용 안내, 디지털컬렉션, 가까운 도서관 찾기 등 스마트폰 이용자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9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소장자료 검색’ 기능을 화면 상단에 고정하여 배치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모바일 웹 사이트에 접속하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760만여 책)를 검색하여 상세 책 정보 및 목차, 책을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복사신청, 야간도서관 이용신청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원문 DB 중 저작권 없는 자료(39만 책)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GPS 기능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위치 주변의 도서관을 검색하고 해당 도서관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모바일 웹’ 방식으로 서비스를 구축하였기에 현재 출시된 모든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며, 웹 호환성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과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추후 국립중앙도서관은 무선 인터넷상에서도 이용자가 도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 : 모바일 웹 서비스>

※ 아래는 실제 국립중앙도서관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스마트폰 서비스 화면이다.



[자료 검색]

[원문 보기]

[가까운 도서관 찾기]

● 문의 : 정보시스템운영팀 (전화: 82-2-3483-8843, 이메일: imssassi@nl.go.kr)



자료보존센터 구축 통합공사 완료 및 개실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보존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자료보존실, 수선·복원실, 제본실, 마이크로필름 보존처리실, 탈산처리실 등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자료보존 관련 시설을 한곳으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완료하였다. 이번 통합공사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자료보존업무 수행과 다양한 매체의 보존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자료보존센터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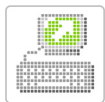


<자료보존센터 : 보존·복원 처리실>

자료보존센터는 2010년 8월 자료보존관 2층에 250평 규모로 설치되었으며 자료보존센터 사무실, 보존·복원처리실, 제본실, 보존과학연구실, 매체변환실, 전자매체보존처리실, 탈산처리실, 자료촬영실 등 총 8개의 전문 자료보존시설을 갖추고 있다.

자료보존센터는 국제도서관연맹 보존·복원분과(IFLA/PAC) 한국센터 사무실을 겸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자료 보존처리 및 전자매체 보존 등 다양한 보존기술 연구를 통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업무를 확대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문의 : 도서관연구소 (전화 : 82-2-590-0740, 이메일 : kuibok@korea.kr)



디브리리 포털 다문화 책정보(국외도서) 서비스 오픈

국립중앙도서관은 일반인 및 국내 거주 다문화인에게 다문화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하는 다문화 관련 국가의 도서에 대한 서지정보를 웹 콘텐츠로 제작하여 2010년 9월 1일부터 ‘디브리리 포털 다문화정보’ (<http://multiculture.dibrary.net>)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올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2009년에 구입한 베트남·태국·필리핀·몽골·인도네시아 도서의 서지정보(원서명·한글서명·표지·목차·국립중앙도서관 소장정보 등) 1,000여 종을 웹 콘텐츠로 구축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특히 서명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전국의 다문화 도서관에서 이주민의 모국어로 된 도서의 수서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국립중앙도서관 외국도서 수집량에 준하여 구축대상 국가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디브리리 포털 다문화 책정보(국외도서) 서비스’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인과, 이주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노력하는 전국 다문화 도서관 및 이주민 관련 기관에서 유용한 정보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체보기

인도네시아어 [Indonesia]

몽골어 [Mongol]

타갈로그어 [Tagalog]

태국어 [ภาษาไทย]

베트남어 [Tiếng Việt]

TOTAL 55 3/11 PAG

Дугурлиг нарсны хчинг булш

한글표제: 종노족의 무덤

저작자: [ерөнхий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ч, Д. Цэвээндорж, Ж. Саруулбуян, Чэ Гуаншунг ; редактор: Ц. Эгиймаа ; орчуулагч, Г. Эрэгзэн, Ц. Цэрэндорж]

발행자: Мэт дизайн

발행년: 2009

ISBN: ...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언어: 몽골어

한국기호: 930.109517-0981

표지 목차

Дөрвөд ястан дахь мөхсөн феодал ба мандсан хувьсгал : түүхэн жүжгийн зохиол

한글표제: 몽골 두르부드족에서의 봉건 멸망과 혁명 승리 : 역사에 대한 연극 시나리오

저작자: Өлзийтийн Бадрах : Монгол бичгээс хөрвүүлж, оршил бичсэн, Д. Идэр

발행자: Мөнхийн үзэг групп

발행년: 2009

ISBN: ...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언어: 몽골어

한국기호: 894.232-8138d

표지 목차

Дөрвөн Ойрадын түүх оршив

한글표제: 두르본 ой르드족의 역사

저작자: Баатар Увш, туурвисан : Латин галиг, үгийн цэс үйлдэж кирилл бичгээр хөрвүүлэн удиртгал, тайлбар бичсэн, Б. Түвшинтөгс, На. Сүхбаатар

발행자: Соёмбо принтинг

발행년: c2006

ISBN: 9789992991756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언어: 몽골어

한국기호: 907.20517-U94d

표지 목차

주제어: Oirats -- History

● 문의 : 디지털기획과(전화: 82-2-3483-8821, 이메일: take3@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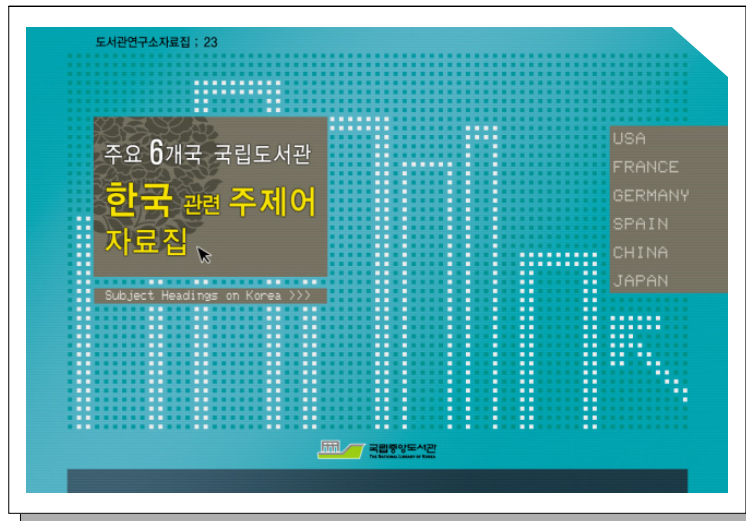


도서관연구소, 주요 6개국 한국 관련 주제어 자료집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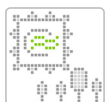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는 2010년 10월 『주요 6개국 국립도서관 한국 관련 주제어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2009년 초, 미국 의회도서관의 한국 관련 주제어 조사를 시작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 중국 국가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스페인 국립도서관 주제어를 조사하였으며 2010년에는 독일 국립도서관의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조사된 한국 관련 주제어 수는 미국 1,191건, 프랑스 592건, 스페인 396건, 독일 282건, 일본 211건, 중국 187건의 순으로 미국이 가장 많았으며 총 주제어 수는 2,859건에 달한다.

이 자료집은 한국의 대학도서관 및 주요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www.nl.go.kr/inkslib)’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 문의: 도서관연구소(전화: 82-2-590-0797, 이메일: nykye@korea.kr)



2010 문화동반자 연수

- 방글라데시, 부탄, 몽골, 카자흐스탄 사서 참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문화동반자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해외사서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아시아·아프리카·남미 지역 4개 국가에서 4명의 사서를 초청하고 있다.



올해는 방글라데시, 부탄, 몽골 국립도서관 및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도서관에서 총 4명을 초청하였다. 초청된 해외사서들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의 사서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크게 ‘한국어 연수’와 ‘도서관 연수’로 나누어진다. ‘한국어 연수’를 통해 해외 사서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역사, 사회, 문화 등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히고 한국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참고봉사를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가졌다. ‘도서관 연수’는 국립중앙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 이루어지며 주제 전문서비스, 참고정보, 자료정리, 보존처리,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서비스, 디지털 도서관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관 실무 연수를 받았다. 또한, 폭넓은 한국의

도서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수 국·공립·대학 도서관을 방문하는 견학 및 문화탐방 프로그램도 실시하였다. 지난 11월 24일에는 그동안의 연구 활동을 선보이는 최종연구발표회를 가지기도 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사서들의 한국 도서관 관련 지식과 정보수준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국가 간 문화교류 및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통한 국제적 도서관 협력망 확대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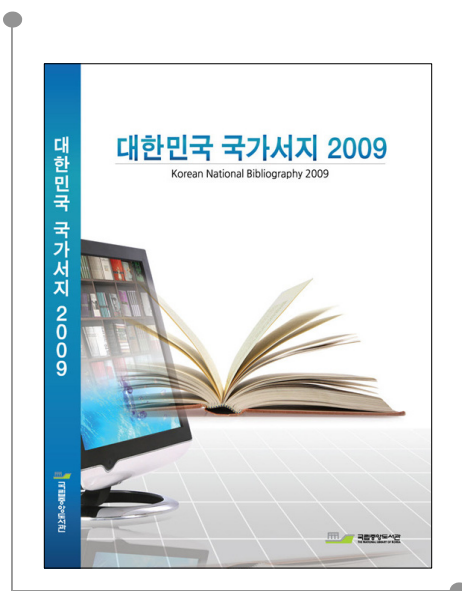
● 문의: 국제교류홍보팀(전화: 82-2-590-6325, 이메일: libwisdom@korea.kr)



『대한민국 국가서지 2009』 DVD 발간·배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내자료의 서지사항을 수록하여 해당 자료의 소재파악 및 출판정보 제공을 위해 대한민국 국가서지를 발간하고 있다.

2010년 11월에 발간된 『대한민국 국가서지 2009』는 국립중앙도서관이 1945년부터 2009년까지 납본 받은 자료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구입한 국외발행 한국 관련 자료, 그리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과학기술전문도서관 등록자료 중 국립중앙도서관에 미소장된 자료 등 총 275만여 데이터를 수록하였으며,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단체 등 1,500여개 처에 배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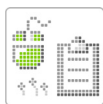


● 문의 : 국가서지정보센터(전화: 82-2-590-6332, 이메일: nlmin@korea.kr)



NLK News

(Source: Newsletter of Libraries No. 184–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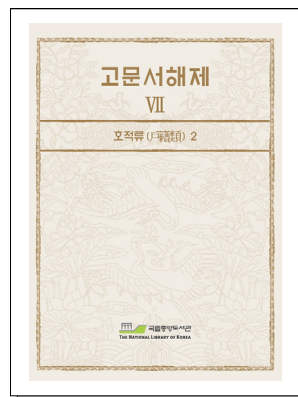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Published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the Manuscripts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VII: Hojeokryu (Family Registry Record) 2”

The Old and Rare Book Collection published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the Manuscripts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VII: Hojeokryu 2* (Annotated Bibliography of the Manuscripts VII).

Old documents which were generated from daily life are the primary sources. The family registry record or “Hojeokryu,” in particular, is an important base material that can be used to examine structure and changes of different social ranks of people during the Joseon Dynasty. Hojeok contains households (家) - a base unit of the family system - and the status of people in those households. The Annotated Bibliography of the Manuscripts VII contains some 950 pieces of Hojeokryu including “Joonhogu” (copies of family register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nd “Hogudanja” (family records documented by individuals for submission to the government), and the 474 Hojeokryu also contains short descriptions and original pictures.

In addition, the publication includes roughly 270 family registry documents issued by the “Hanseong-b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Hanseong-bu was in charge of the nation's family registry, thus it listed more records and was more thorough than family registry records issued by other local governments. Its inclusion is expected to help in understanding the different housing patterns of Seoul.



< Picture: The Annotated Bibliography of the Manuscripts VII >

● Contact informat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Tel: 82-2-590-0507, E-mail: kimhyo777@korea.kr)



“A Library in My Hand,” Easy and Convenient, Anywhere Any Time

–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Has Begun Mobile Web Services (m.nl.go.kr)” –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began mobile web services for smart phone users in May, 2010 as a pilot program, and since July 1st, it has started providing the service in earnest.

The service has nine useful menus to choose from (right), such as “Library Use,” “Digital Collection,” and “Find a Nearby Library.” For convenient searches of library materials, in particular, the search engine has been placed at the top of the screen.

Accessing the NLK mobile website allows users to search for detailed book information (roughly 7.6 million) including their table of contents as well as reading rooms in the library, copy and posting requests, and applications for night time library use. Also, out of the full-text DB created by the NLK, 390,000 books without valid copyrights are accessible. What's more, our GPS function will locate and give directions to the library nearest you while the "Mobile Web" dimension of the service, allows access from all market smart phones. Plus, with strengthened web compatibility, the same service quality is enjoyed on different mobile platforms and on more than three types of browsers.

The NLK will continue to expand its service scope so that users can access book information on the mobile Internet.



< Picture : Mobile Web Services >

※ Below are the captured snap shots of the actual service offered on the NLK website for smart phones.



[Search Materials]

[Use the Full-text Service]

[Find a Nearest Library]

● Contact information: Information Technology Team (Tel: 82-2-3483-8843, E-mail: imssassi@nl.go.kr)



Completion of Consolidating Preservation Center and Its Opening

The NLK completed the remodeling and construction necessary to integrate and consolidate the Preservation Office, the Conservation Laboratory, the Bindery, the Reformatting Room, and the Deacidification Room that were once dispersed. The integrating process will enable us to preserve materials more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as well as to deal with different types of media. Therefore, the Consolidating Preservation Center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the leading preservation center in Korea.



< Material Preservation Center:
Preservation · Restoration Processing Room >

The center was completed in August, 2010 on the 2nd floor and houses its 826.4500m² office and seven professional preservation facilities: the Conservation Laboratory, the Bindery, the Reformatting Room, and the Deacidification Room, the Photograph Room, the Electronic Material Conservation Room, the Research Laboratory and Fumigation Room.

The center also holds the 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PAC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Korean center as well. Future efforts in research towards different preservation technologies, such as in-depth material preservation processing and electronic media conservation, will ensure that preservation at the NLK will be expanded and strengthened.

● Contact informat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Tel: 82-2-590-0740, E-mail: kuibok@korea.kr)



Dibrary Portal Multi-cultural Book Information (Foreign Books) Service Opened

The NLK began services on September 1st, 2010 for its “Dibrary Portal Multi-cultural Information (<http://multiculture.dibrary.net>)” where book information from different countries compiled by the NLK has been created as web contents to provide Korean nationals, and immigrants residing in Korea, with useful information about different cultures.

By the end of this year, the NLK will create and update approximately 1,000 types of book information (e.g. original book titles, Korean titles, covers, tables of content, NLK book storage information) as web contents from purchases in 2009 from Vietnam, Thailand, the Philippines, Mongolia, and Indonesia. Book titles will be translated into Korean to help the nation's multi-cultural libraries acquire international books in native languages, and the number of countries to be added for the service will be expanded later in line with the number of foreign books collected by the NLK.

It is hoped that “Dibrary Portal Multi-cultural Information” will be used as an important information source for immigrants living in Korea and by nation-wide multi-cultural libraries and organizations that help immigrants enjoy their cultures.

The screenshot displays the 'Dibrary Portal Multi-cultural Information' website. At the top, there are language selection buttons: '전체보기' (All), '인도네시아어 [Indonesia]', '몽골어 [Mongol]', '타갈로그어 [Tagalog]', '태국어 [Thailand]', and '베트남어 [Tieng Viet]'. Below these, a 'TOTAL 55' counter and a '3/11 PAGE' indicator are visible. The main content area lists three books with their covers and detailed metadata in Korean.

Book Title (Mongolian)	Language	Year	ISBN	Publisher
Дуурлиг нарсны хүннү булш	Mongolian	2009	930.109517-0981	국립중앙도서관
Дөрвөд ястан дахь мөхсөн феодал ба мандсан хувьсгал : түүхэн жүжгийн зохиол	Mongolian	2009	894.232-B138d	국립중앙도서관
Дөрвөн Ойрадын түүх оршив	Mongolian	2006	9789992991756	국립중앙도서관

- Contact information: Digital Library Planning Division (Tel: 82-2-3483-8821, E-mail: take3@korea.k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Published Subject Headings on Korea of the 6 Major National Libra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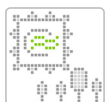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published the *Subject Headings on Korea of the 6 Major National Libraries* in October.

Beginning with the Library of Congress in the United States in early 2009, the NLK surveyed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at the National Libraries of France, China, Japan, Spain and Germany in 2010. The number of subject headings topped 1,191 in the United States, followed by 592 in France, 396 in Spain, 282 in Germany, 211 in Japan and 187 in China, and totaled 2,859 all together.

The book distributed to university and public libraries in Korea, and will appear on the website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Studies Librarians (www.nl.go.kr/inkslib) of the NLK.



- Contact informat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Tel: 82-2-590-0797, E-mail: nykye@korea.kr)



2010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Training

– 4 Librarians from Bangladesh, Bhutan, Mongolia, Kazakhstan Participated

Since 2006, the NLK has invited four librarians from countries in Asia, Africa, and South America each year for its “Foreign Librarian Invitational Training Program” as part of its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This year, three librarians from national libraries in Bangladesh, Bhutan, Mongolia and another from the National Academic Librar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were invited and participated in the six-month (from June to November) librarian training program. The program is divided into Korean learning and library training. By learning Korean, the invited librarians broadened their understanding of Korea in history, society and culture and they improved their Korean skills to participate in collecting and organizing materials and assisting library users. The training took place at the NLK and university libraries and the librarians received training in actual library work, including keyword specialty services, reference information, material organization, preservation processing, children/adolescent library services and digital libraries. They also had opportunities to visit recognized libraries at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through visitation and cultural programs and experienced Korea's vast library resources. The librarians held a research presentation session on November 24th where they displayed their research activities during their stay in Korea.

The NLK will try to raise the level of foreign librarians'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Korean libraries through the training program, while contributing to culture exchanges in order to improv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nations. It is also hoped that the program participants will help the international library cooperation network flourish in the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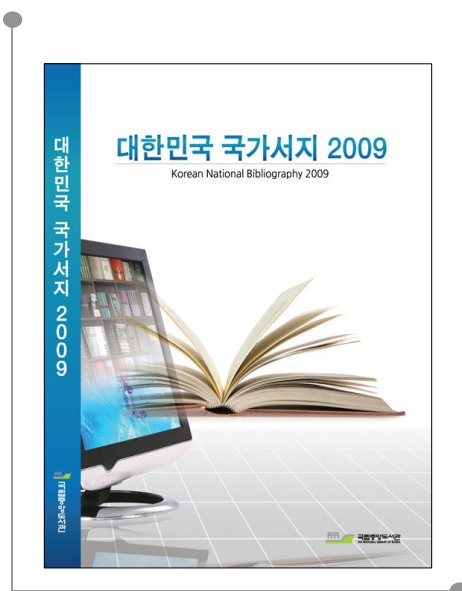
- Contact inform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ublic Relations Team (Tel: 82-2-590-6325, E-mail: libwisdom@korea.kr)



“Korean National Bibliography 2009” DVD Published and Distribute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publishes the “Korean National Bibliography” which includes bibliographic information on materials published in Korea to help find locations and provide publication information.

Published in November, 2010, “Korean National Bibliography 2009” contains approximately 2.75 million pieces of data including deposited materials between 1945 and 2009; purchased materials between 2005 and 2009 (published overseas but related to Korea); and materials registered at public, university, and science/technology libraries, but not hel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bibliography has been distributed to approximately 1,500 librar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at home and abroad.



- Contact information: (Tel: 82-2-590-6332, E-mail: nlmin@korea.kr)

[비매품]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제 4 호 (2010년 12월)

2010년 12월 22일 인쇄

2010년 12월 24일 발행

발 행 처 : 국 립 중 앙 도 서 관

도 서 관 연 구 소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

전화 : (02) 590-0797

팩스 : (02) 590-0502

인 쇄 : 원화디앤피(Tel. 2266-4410)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umber 4 (December 2010)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Banpo-ro 664, Seocho-gu,

Seoul, Korea

Tel : (02) 590-0797

Fax : (02) 590-0502

www.nl.go.kr
